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EBS 모의평가

## 국어 영역 정답과 해설

### 제 1 회

#### 정답

1	㉓	2	㉔	3	㉓	4	㉕	5	㉓
6	㉒	7	㉑	8	㉔	9	㉕	10	㉕
11	㉓	12	㉒	13	㉕	14	㉑	15	㉕
16	㉓	17	㉒	18	㉑	19	㉒	20	㉒
21	㉕	22	㉒	23	㉔	24	㉑	25	㉓
26	㉔	27	㉕	28	㉒	29	㉑	30	㉑
31	㉔	32	㉕	33	㉒	34	㉔		

#### [화법과 작문]

35	㉕	36	㉓	37	㉔	38	㉒	39	㉑
40	㉔	41	㉔	42	㉓	43	㉓	44	㉕
45	㉑								

#### [언어와 매체]

35	㉕	36	㉓	37	㉒	38	㉓	39	㉕
40	㉑	41	㉒	42	㉒	43	㉔	44	㉑
45	㉔								

#### 해설

#### [1~3] 요약하며 읽기

**[해제]** 이 글은 독서를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 기억하는 방법인 요약하며 읽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요약하기에 대해 키크와 반 다이크는 삭제, 일반화, 선택, 재구성의 네 가지 규칙을 제시하였다. 브라운과 데이는 이를 발전시켜 여섯 개의 규칙으로 정리하였는데, 이 규칙들은 크게 삭제, 상위어 대치, 주제문 선택, 주제문 창출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약의 규칙을 익히면 기억해야 할 양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서도 글의 핵심 논지를 비교적 온전히 기억할 수 있다.

**[주제]** 요약하며 읽기의 규칙

**[구성]**

- 1문단: 요약하며 읽기의 필요성
- 2문단: 키크와 반 다이크의 요약하기 규칙
- 3문단: 브라운과 데이의 요약하기 규칙
- 4문단: 요약하며 읽기의 효용성과 점검법

#### 1. 독서의 목적

정답 ③

**정답 해설** 4문단에 따르면 규칙의 질문화는 요약하기가 끝난 후, 제대로 요약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므로 독서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1문단에 따르면 한 편의 글에 있는 문장들의 중요도는 다르다. 따라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요약하기가 필요하다.
- ② 4문단에 따르면 요약의 규칙을 익히면 기억해야 할

양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서도 글의 핵심 논지를 비교적 온전히 기억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키크와 반 다이크는 연속되는 명제들은 요소 결과들을 지시하는 새로운 명제로 재구성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3문단에서 브라운과 데이도 주제문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스스로 창출하라고 하였다.

⑤ 1문단에 따르면 요약하며 읽기는 독자가 텍스트를 읽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전략이다.

#### 2.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㉑은 거시 구조 측면에서 접근하여 핵심을 간추려 나가는 독자의 텍스트 처리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세부 내용들을 결합해 가면 거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㉑은 부수적인 속성들을 지시하는 명제들은 삭제한다고 하였으며, ㉒은 부수적인 내용이나 반복되는 내용은 삭제한다고 하였다.

② ㉑은 연속되는 세부 명제들은 그것들보다 상위의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나 명제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㉒도 항목의 목록들이나 세부적인 행동들이 열거될 때는 포괄적인 말로 대체하라고 하였다.

③ ㉑은 연속되는 명제들은 요소 결과들을 지시하는 새로운 명제로 재구성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㉒은 주제문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스스로 창출하라고 하였다.

⑤ ㉑은 주제문을 찾으라는 규칙을 제시하지 않은 반면, ㉒은 주제문을 찾고, 주제문이 없을 때에는 스스로 주제문을 창출하라는 규칙을 제시하였다.

#### 3. 적절한 독서 계획 수립과 독서 실천

정답 ③

**정답 해설** ㉓는 예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시와 같은 부수적인 내용은 삭제하라는 것이 여섯 개의 규칙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㉔는 세부 항목들이 열거되는 것이므로 몇 나라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어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㉕는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에 대한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세부적인 행동이 열거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위어로 대체하기도 어렵다.

④ ㉔와 ㉓는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두는 이유에 대한 설명들로 반복되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므로 둘 중 하나를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㉑는 앞의 내용을 요약하는 문장이다. 그러므로 핵심 논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 [4~9]

##### (가) 허구적 대상의 존재

**[해제]** 이 글은 홍길동과 같은 허구적 대상의 존재

유무에 대한 관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홍길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홍길동에 대한 명제들에 참과 거짓을 이야기한다. 이는 홍길동이 소설 안에서만 있는 추상적 존재이지만 사람들은 존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시·공간에 있거나 현실에 대응되는 것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허구적 대상주의자는 홍길동은 소설이라는 가능 세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주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상식과 허구적 대상주의자의 관점

**[구성]**

- 1문단: 홍길동의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상식
- 2문단: 홍길동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시·공간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님.
- 3문단: 홍길동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현실에 대응되는 존재가 없음.
- 4문단: 홍길동의 존재를 인정하는 허구적 대상주의자들의 관점

##### (나) 소설에 대한 배경론과 옹호론

**[해제]** 이 글은 조선 시대 소설 배경론자들과 옹호론자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소설 배경론자들은 소설에 대해 유교적 가치관과 맞지 않고 사실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김시습이나 박지원과 같은 인물은 소설이 현실을 반영하여 진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다.

**[주제]** 조선 시대 소설 배경론의 입장과 옹호론의 입장

**[구성]**

- 1문단: 소설 배경론자들의 주장
- 2문단: 김시습의 소설 옹호
- 3문단: 박지원의 소설 창작법

#### 4. 중심 내용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가)에서는 허구적 대상인 홍길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분석하고 있다. (나)에서는 허구성을 가진 소설이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는 '존재한다'는 말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나)에서는 언어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이 없다.

② (가)에서 허구적 대상의 범주를 유형화한 것은 아니다. (나)에서 허구적 대상과 실제 대상의 차이를 비교한 것도 아니다.

③ (가)에서는 허구적 대상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언급이 없다.

④ (나)에서는 허구적 대상이 가진 내재적 모순에 대해서 분석하지는 않는다.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4문단에 따르면 허구적 대상주의자는 허구적 대상이 존재한다고 보는 사람들로 현실에 존재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허구적 대상주의자는 현실에서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 해설

- ① 허구적 대상주의자는 구체적인 시·공간 안에 없더라도 대상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존재의 증거라고 말한다.
- ② 허구적 대상주의자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소설 속의 인물과 같은 허구적 대상도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순신과 같이 과거에 있었지만 현재 없는 대상도 존재한다고 본다.
- ④ 4문단에 따르면 허구적 대상주의자는 참과 거짓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이 존재의 증거라고 보았다.
- ⑤ 4문단에 따르면 허구적 대상주의자는 가능 세계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면 존재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6.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 ②

정답 해설 박지원은 정조의 비난에 ㉠와 같은 부분을 덧붙였다. 이것은 다른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체에 대한 정조의 비난을 피해 가면서도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 의식은 바꾸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은 박지원이 잘못된 문체의 근원이라는 정조의 비난에 대한 박지원의 대응 방법이다. 소설을 진실로 믿고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사용한 장치는 아니다.
- ③ ㉠은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므로 ㉠을 덧붙인다고 해서 소설의 내용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은 박지원이 정조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 아니다.
- ⑤ ㉠은 소설의 내용에 대한 정조의 비난을 피해 가기 위한 형식적 장치이다.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유교적 도덕률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7.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윤영과 신 씨는 동일인이지만 박지원은 윤영이라고 믿었던 사람을 신 씨라고 하여 현실과 소설의 경계를 모호하게 나타내고 있다. 두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같은 소설 속에 있는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능 세계임을 보여 주려 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② 변승업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므로, 이순신이 현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허구적 대상주의자들은 현실에 대응되는 대상이 없더라도 허구의 대상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존재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허생이나 윤영도 존재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 ④ 박지원은 소설이 현실을 반영하고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허생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없었다 하더라도 박지원이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 ⑤ 소설 배경론자들은 소설 속에 실존 인물들을 등장

시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이도록 서술하는 것에 대해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 하였다.

8.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 ④

정답 해설 김시습은 한유나 장자의 예를 들어 '말이 세상의 교화에 관계되니 괴이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박지원의 소설이 도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박지원을 비판한 정조에게 김시습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교화될 수 있다면 도덕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소설의 세계에서 어떤 이야기도 가능하므로 가능성이 존재의 증거라는 말은 김시습이 아니라 허구적 대상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다.
- ② 김시습은 배경이 허구라는 것을 근거로 존재 유무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았다.
- ③ 김시습이 유교적 도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 ⑤ 김시습이 백성들이 소설을 쓰는 이유나 문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9.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에 사용된 '우의적'은 문맥상 '우의적(寓意的)', 즉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성격.'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우의적 관계'라고 할 때는 문맥상 '우의적(友誼的)', 즉 '친구 사이의 정의가 있는 것.'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 ① '기반(基盤)'은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를 뜻한다.
- ② '전자(前者)'는 '두 가지 사물이나 사람을 들어 말할 때, 먼저 든 사물이나 사람.'을 뜻한다.
- ③ '개탄(慨嘆)'은 '분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겨 한탄함.'을 뜻한다.
- ④ '무방(無妨)'은 '거리낄 것이 없이 괜찮음.'을 뜻한다.

[10~13] 주가 지수의 산정

**[해제]** 이 글은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인 주가 지수의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가 지수는 기준 시점의 주가 수준을 100으로 하여 비교 시점의 주가 수준을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주가 지수 산출 방법은 크게 '주가 평균 방식'과 '시가 총액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대우 지수로 대표되는 주가 평균 방식은 선정된 회사의 주가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S&P500 지수로 대표되는 시가 총액 방식은 시가 총액의 합을 기준 시점과 비교하여 산정한다. 시가 총액 방식을 사용할 때 유상 증자나 신규 상장, 상장 폐지와 같은 주가 변동 외의 요인으로 시가 총액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기준 시점의 시가를 가감하는 보정을 한다.

**[주제]** 주가 평균 방식과 시가 총액 방식의 주가 지수 산정 방법

**[구성]**

- 1문단: 주가 지수의 개념

- 2문단: 주가 평균 방식 지수 산출 방법
- 3문단: 시가 총액 방식 지수 산출 방법
- 4문단: 시가 총액 방식에서의 기준 시점 보정

10.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2문단에 따르면 주가 평균 방식은 선정된 기업의 주가를 평균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시가 총액에 변화가 있더라도 평균 주가에 변화가 없다면 주가 평균 방식의 지수는 변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4문단에 따르면 유상 증자를 하는 경우 시가 총액이 늘어난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주가 지수는 기준 시점을 100으로 한 지수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주가 수준이 기준 시점보다 낮다면 주가 지수는 100p보다 낮게 된다.
- ③ 1문단에 따르면 주가 지수는 비교 시점의 주가 수준을 기준 시점의 주가 수준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이다. 주가 수준이라는 것은 평균 가격과 시가 총액으로 구할 수 있다. 주가가 상승한 기업의 수가 하락한 기업의 수보다 많다고 해서 평균 가격이 오르거나 시가 총액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 ④ 4문단에 따르면 시가 총액 방식으로 산정할 때도 신규로 상장되거나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목록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1. 중심 내용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3문단에 따르면 기업들의 시가 총액을 합한 값은 주식 시장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 ㉠과 ㉡은 모두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주식 시장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과 ㉡ 중에서는 시가 총액 방식인 ㉡이 ㉠보다 주식 시장의 수준을 나타내는 데 더 적합하다.

오답 해설

- ① ㉠에는 30개 기업이, ㉡에는 500개 기업이 선정된다.
- ② ㉠에는 각 산업을 대표하는 가장 신용 있고 안정된 우량 기업이, ㉡에는 500개 우량 기업이 선정된다.
- ④ ㉠은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주가 변동으로 지수에 왜곡이 일어나지만, ㉡은 그러한 변동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
- ⑤ ㉠은 주가를 평균하기 때문에 시가 총액이 큰 기업의 영향이 다른 기업보다 크지 않지만, ㉡은 시가 총액 방식이므로 시가 총액이 큰 기업의 주가 변동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12.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②

정답 해설 시가 총액 방식으로 지수를 산정하면 900,000(비교 시점) ÷ 300,000(기준 시점) × 100 = 300p가 되며, 주가 평균 방식으로 지수를 산정하면 100(비교 시점) ÷ 50(기준 시점) × 100 = 200p가 된다. 그러므로 시가 총액 방식으로 산출했을 때의 지수가 주가 평균 방식의 지수보다 더 높다.

오답 해설

- ① 3문단에 따르면 현재의 종합 주가 지수는 시가 총액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기준 시점의 시가 총액에 대한 보정이 없으므로 주가 지수는 900,000 ÷ 300,000 × 100 = 300p가 된다.

③ C 기업은 주가가 하락했지만 시가 총액은 증가하였다. 2문단에서 시가 총액은 주가와 주식 수를 곱한 값이므로 주가가 내렸지만 시가 총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주식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에 서는 기준 시점의 시가 총액에 대한 보정이 없고, 인수 합병이나 유상 증자도 없다고 하였으므로 액면 분할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D 기업의 시가 총액은 40,000에서 100,000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주가는 40 그대로이다. 그러므로 주가 평균 방식으로 지수를 산정할 때는 D 기업의 가치가 상승한 것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⑤ 시가 총액은 주식 수에 시장 가격을 곱한 값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가가 10% 더 오를 경우 A 기업의 경우 시가 총액은 40,000 증가한다. D 기업은 10,000 증가하므로 비교 시점의 시가 총액 증가량은 A 기업이 D 기업보다 크다. 따라서 시가 총액 방식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A 기업이 더 크다.

### 13.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3월 9일에는 ㈜율이 상장 폐지되었으므로 ㈜율이 업종의 시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기준 시점의 시가 총액을 줄이는 보정을 한다. 따라서 시가 총액은 50억 원이 줄었지만, 주가 지수는 3월 8일과 같다. 3월 8일의 업종의 시가 총액이 50억 원 늘어난 것은 주가 상승 때문이므로 주가 지수는 3월 6일과 7일의 200p보다 높다. 따라서 3월 9일과 7일의 시가 총액은 동일하지만 주가 지수는 9일이 높다.

#### 오답 해설

- ① 3월 6일의 주가 지수 200p는 시가 총액 1,000억 원 ÷ 기준 시점 시가 총액 × 100을 해서 나온 값이다. 그러므로 기준 시점의 시가 총액은 500억 원이 된다.
- ② 신규 상장되는 기업이 있을 경우, 기준 시점의 시가 총액을 보정하여 주가 지수에 변화가 없도록 한다. 따라서 3월 7일의 주가 지수는 200p 그대로이다.
- ③ 3월 7일에는 시가 총액이 100억 원, 즉 1,000억 원의 10%가 늘었지만, 이는 신규 상장으로 인한 것이므로 기준 시점의 시가 총액도 10% 늘리는 보정을 한다.
- ④ 3월 6일의 주가 지수는 200p이고, 3월 7일의 주가 지수도 기준 시점의 시가 총액을 보정하면 200p가 된다. 3월 8일의 주가 지수를 산정해 보면 기준 시점 업종의 시가 총액은 7일과 같지만, 비교 시점 시가 총액은 1,150억 원으로 7일보다 크다. 따라서 3월 6일~8일 중 8일의 주가 지수가 가장 높다.

### [14~17] 허수의 역사와 기하학적 해석

**[해제]** 이 글은 허수를 발견하게 된 과정과 허수의 성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허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수로 연산의 규칙상 모순적인 수이지만, 방정식의 근을 찾는 데 일관된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가우스는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진 복소수를 복소평면에 표시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는데, 이를 통해 복소수에 대한 기하학적 해석이 가능해졌다. 복소평면에서 복소수의 덧셈은 원점과 두 복소수, 그리고 복소수의 합이 평행 사변형을 이루며, 복소수의 곱셈을 하면 복소수의 위상각만큼 왼쪽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 이러한 허수에 대한 기하학적 이해는 이전까지 설명하지 못했던 다양한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주제]** 허수의 유용성과 복소평면에 나타나는 기하학적 성질

#### [구성]

- 1문단: 무리수의 발견
- 2문단: 카르다노가 발견한 허수
- 3문단: 허수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과 복소평면의 고안
- 4문단: 수직선에 나타난 실수의 연산
- 5문단: 복소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 허수의 연산
- 6문단: 허수의 이용 분야

### 14.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3문단에 따르면 복소평면은  $x$  축을 실수,  $y$  축을 허수로 하는 평면으로, 평면상의 한 점은  $a+bi$  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무리수는 실수이고 허수 부분이 없으므로 복소평면에서  $x$  축 위의 한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② 1문단에 따르면 피타고라스는 무리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허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아니다.
- ③ 4문단에 따르면 어떤 수에  $-1$ 을 곱하게 되면  $180^\circ$  회전을 하게 되고, 두 번 곱하면 또다시  $180^\circ$  회전을 하게 되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 ④ 4문단에 따르면 수직선의 숫자들에 자연수  $n$ 을 곱하게 되면 간격이  $n$ 배 늘어난다. 자연수를 곱하면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순서가 바뀌지는 않는다.
- ⑤ 5문단에 따르면 가우스의 복소평면에 있는 복소수에 허수를 곱하면 왼쪽으로  $90^\circ$  회전하게 된다. 그렇지만 실수로 이루어진 데카르트의 좌표 평면상의 한 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15.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⑤

**정답 해설** 5문단에 따르면 복소수를 곱하면 편각만큼 왼쪽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z_1$ 에  $z_2$ 를 곱하면  $P_2$ 의 편각만큼 회전을 하게 된다. 점  $P_1$ 을 회전시켜 보면  $x$  축 위의 한 점이 될 수는 없다.

#### 오답 해설

- ① 3문단에 따르면 가우스의 복소 평면은  $x$  축을 실수,  $y$  축을 허수로 하여  $4+2i$ 와 같은 형태로 복소수를 나타낸다. 점  $P_1$ 의  $x$  축 값은  $a$ 이고  $y$  축 값은  $b$ 이므로 복소수  $a+bi$ 를 나타낸다.
- ② 편각은 <그림 2>에서 표시한 것과 같이 복소수를 나타내는 점과 원점을 잇는 직선이 실수 축과 이루는 각이다. 그러므로 점  $P_2$ 의 편각은 점  $P_1$ 보다 크다.
- ③ 허수  $i$ 는 제곱을 해서  $-1$ 이 되는 수이다. 4문단에서  $-1$ 을 곱하는 것은  $0$ 을 기준으로  $180^\circ$  회전하는 변환이라고 하였으므로  $i$ 를 곱한 값을 곱하면  $180^\circ$  회전하게 된다.
- ④ 5문단에 따르면 허수  $i$ 를 곱한다는 것은 복소평면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90^\circ$  회전하는 변환이다.

### 16.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 ③

**정답 해설** 2문단에서 허수가 상상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양수끼리 곱하거나 음수끼리 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제곱은 두

번 곱하기를 한다는 것이므로 카르다노에게 허수는 연산의 규칙상 모순이 되는 수였다.

#### 오답 해설

- ① 허수는 제곱을 해서 무리수가 되는 수가 아니다.
- ② 좌표 평면에 수를 표시하는 방법은 데카르트가 고안한 방법이다. 카르다노는 이전 시대의 인물로 좌표 평면에 표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순적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 ④ 카르다노는 허수를 발견했으며, 허수를 인정할 경우 근사치로 실수의 근을 찾는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정확하고 간단하게 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 ⑤ 카르다노가 피타고라스의 영향 때문에 허수를 모순적인 수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 17.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은 '이름이 생기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제품명을 붙이다.'의 '붙이다'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 오답 해설

- ①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의 의미이다.
- ③ '추가 되는 것에 달리게 하거나 딸리게 하다.'의 의미이다.
- ④ '어떤 감정이나 감각을 생기게 하다.'의 의미이다.
- ⑤ '조건, 이유, 구실 따위를 딸리게 하다.'의 의미이다.

### [18~23]

#### (가) 박재삼, 「매미 울음 끝애」

**[해제]** 이 시는 매미 울음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탐구하고 있는 작품이다. 유추에 의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감각적 심상과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랑을 형상화하고 있다. 매미 울음소리는 한여름 무더위를 절정으로 올려놓고는 이내 사라지는데, 사랑 또한 한여름 소나기처럼 습차게 다가와 몸과 마음을 적셔 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사라진다는 점에서 이와 공통점이 있다. 화자는 매미 울음이라는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사랑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사랑의 순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또한 사랑이 떠나간 뒤의 상태를 '맑은 구름'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판단을 유보한 채 독자에게 여운을 주고 있다.

**[주제]** 사랑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깨달음

#### [구성]

- 1연: 한여름 한창이던 매미 울음소리가 사라진 상황
- 2연: 소나기처럼 왔다가 아무 일 없었던 듯 사라지는 사랑의 속성

#### (나) 고재중, 「첫사랑」

**[해제]** 이 작품은 나뭇가지를 향한 눈의 헌신적 사랑을 그리고 있다. 눈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지라도 사랑을 이루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헌신적 노력으로 봄이 되면 나뭇가지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낸다. 이를 통해 헌신적으로 피워 낸 사랑의 고귀함을 전달하고 있다.

[주제]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위한 시련과 고난

[구성]

- 1연: 눈꽃을 만들기 위한 눈의 도전
- 2연: 눈의 구체적인 도전의 모습
- 3연: 도전 끝에 이룩한 눈꽃의 아름다움
- 4연: 눈꽃이 피어난 자리에 터지는 새싹의 모습

(다) 장유, 「곡목설」

[해제] 「곡목설」은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를 다른 사태에 전이시켜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설 양식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제목은 '굽은 나무 이야기'라는 뜻으로 장생(목수)과 장자(글쓴이)라는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글은 겉으로 보기에 굽은 나무가 알고 보면 곡목, 즉 굽은 나무였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성품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당당하게 행세하는 인간사를 비판하고 있다. 글쓴이는 나무(선비)가 굽은 것은 이해에 눈이 어둡기 때문이며, 굽은 선비보다는 성품이 바르지 못한 선비가 조정의 관료로 더 많이 쓰이는 잘못된 세상을 개탄한다.

[주제] 나무의 속성에 견주어 본 인간 세태

[구성]

- 전반부(장생의 말): 굽은 나무와 같은 위선적인 인간이 득세하는 세상
- 후반부(장자의 말): 재목으로 쓰이지 않는 굽은 나무와 달리 위선적인 사람을 인재로 쓰는 조정

### 18.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정답 ①

**정답 해설** (가)는 한여름에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아무 기척 없이 사라지는 변화 과정을, (나)는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흩날리다가 마침내 꽃을 피워 내는 자연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의 속성을 관찰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을 뿐 예찬적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③ (가)에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④ (나)는 자연물인 '눈'에 인격을 부여해 첫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애쓰는 인간의 삶의 모습과 연결하고 있다.
- ⑤ (가)는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것이 긍정적 속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는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눈의 긍정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는 굽은 나무의 모습에서 인간과 세태의 부정적 면모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 19.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가)와 (나) 모두 동일한 시구를 반복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가)는 '정적의 소리'에, (나)는 '아름다운 상처'에 역설을 활용하고 있다.
- ③ (가)는 '정적의 소리인 듯' 등에, (나)는 '햇살 같은' 등에 비유를 활용하고 있다.
- ④ (가)는 '쟁쟁쟁'에, (나)는 '싸그락 싸그락', '난분분 난분분'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다.
- ⑤ (가)는 '한여름', '무더위', '매미 울음', '소나기' 등 여름을 상징하는 소재를, (나)는 '눈'이라는 겨울을 상징하는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 20.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정답 ②

**정답 해설** (가)의 화자는 한여름의 무더위를 절정으로 올려놓은 매미 울음소리처럼 '사랑'도 이처럼 절정에 이르고 인식하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눈꽃을 피우기 위해 눈이 많은 도전과 노력 끝에 결실을 맺는 것처럼 '사랑'도 노력해야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사랑'을 할 때에는 상대를 위해 열정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사랑'은 절정에 이르렀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속성이 있으므로 자신을 희생하는 속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나)의 '사랑'은 수많은 도전과 노력 끝에 결실을 맺는 것이므로 상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속성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가)와 (나)의 '사랑' 모두 잔잔하게 시작하여 점점 더 커지는 속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 ④ (가)의 '사랑'은 '사랑에는 끝이 있다'는 특성이 드러나지만 (가)의 화자가 사랑을 시작할 때 끝날 것을 미리 대비하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나)의 '사랑' 또한 사랑을 시작하기 위한 노력이 드러날 뿐 끝날 것을 대비하는 화자의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⑤ (가)의 '사랑'은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라지는 속성만을 보여 주고 있어 상대와 함께하는 즐거움은 드러나지 않는다. (나)의 '사랑'은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는 노력, 즉 고통을 감수하고 있으므로 '고통보다는 상대와 함께하는 즐거움이 더 큰 사랑의 속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21.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A]에서는 '물욕이 참된 성품을 혼탁하게 하고 이해관계가 분별력을 흐리게 한 나머지 천성이 왜곡되었다'고 제시되어 있으나, [B]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A]에서는 성품이 혼탁하고 분별력이 흐린 사람에 대해 천성이 왜곡된 결과라 했으므로 사람의 본성은 바르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에서도 사람의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의 속성이 바르기만 하다고 했으므로 사람은 본성상 바르다고 보고 있다.
- ② [A]에서는 나무가 '밤낮으로 커 나가'다가도 '구부러져 쓸모없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고, [B]에서도 '나무가 굽었을 경우 재목으로는 쓸 수 없을지 몰라도'라고 제시되어 있다.
- ③ [A]에 '물욕이 참된 성품을 혼탁하게 하고 이해관계가 분별력을 흐리게 한 나머지 천성이 왜곡되어 본래의 모습에서 일탈된 경우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한 부분에 해당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④ [B]에서 「홍범」을 인용하며 나무는 '그 속성이 구부러지고 바르다 하였다.'라고 한 부분에 해당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2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겠-'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로 ㉠의 '춤추겠지'에서 활용한 '-겠-'은 눈이 과거에 어떻게 흘렀을지를 추측하는 의미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눈이 변하게 될 모습을 보여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그들의 소리'에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매미 울음소리의 변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에서 유사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꽃을 피우기 위해 미끄러져도 다시 도전하는 눈의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에서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용모는 그럴듯하게 꾸미면서 속마음은 숨기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⑤ '활줄처럼~봉해진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정직한 사람은 잘 살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은 벼슬을 받는 세태를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2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나)에서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과 '아름다운 상처'는 첫사랑의 결실을 드러내는 근원 영역이다.

**오답 해설**

- ① (가)는 절정에 이른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한여름의 '매미 울음'과 '소나기'라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근원 영역을 활용하고 있다.
- ② (가)에서 사랑의 감정이 지난 후에 마치 사랑이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는 내면의 변화 과정(목표 영역)을 드러내기 위해 한여름 매미 소리가 '아무 기척도 없'이 사라지는 상황을 근원 영역으로 활용하고 있다.
- ③ (나)에서 첫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목표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기 위해 도전하고 노력하는 '눈'을 근원 영역으로 활용하였다.
- ⑤ (다)에서 '비뚤어진 사람'이라는 목표 영역을 드러내기 위해 '구부러진 나무'라는 근원 영역을 활용하여 목수는 구부러진 나무를 쓰지 않는데, 조정은 비뚤어진 사람을 채용하는 상황을 비교하고 있다.

### [24~27] 송기원, 「아름다운 얼굴」

[해제] 출신에 대한 자기혐오가 문학의 출발점이자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였음을 자전적 고백을 통해 드러내는 소설이다. 주인공인 '나'는 성장해 가면서 자신의 본모습을 자각하게 되고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 '자기혐오'라는 방법으로 현실에 대응한다. 자신이 나고 자랐던 장터와 감옥에 간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은 도리어 큰 죄책감을 가져왔고 문학을 하면서 더욱더 내적 갈등에 시달리게 된다. 결국 '나'는 후배와의 대화를 통해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관계를 인식하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로써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 왔던 자기혐오에서 벗어나게 된다.

[주제] 자기 확인의 과정과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전체 줄거리]

건달패이자 노름꾼인 아버지와 장돌뱅이 어머니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나'는 어린 시절 굶주림에 대한 동물적인 공포감, 피투성이가 되어야 끝나는 사생결단의 부부 싸움 속에서 자랐으나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자신의 출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다. 갑초처럼 자랐지만 장터 특유의 낙천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커 온 것이다. 장돌뱅이 출신으로 처음으로 도청 소재지의 고등학교

교에 들어간 '나'는 자신의 비천한 신분을 깨닫고 1년도 못 되어 집으로 돌아온다. '나'는 건달패의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친척 집에 은신하면서 처음으로 세상에 대한 무기로 문학을 알게 되고 복학하여 백일장을 휩쓸었고, 세상에 대한 무기로 위약을 배운다. 그러다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살이를 하는데, 그사이 어머니가 자살하고 만다. 이후 '나'는 어머니와 처자식의 뒤를 봐준 문단 선�후배의 권유로 출판사에 들어가 10년을 보낸다. 그리고 문학에 대한 감동보다는 상품성을 먼저 따지는 출판 경영인의 마음을 갖게 된 '나'는 또다시 자기혐오에 빠져 그곳에서 빠져 나온다.

## 24. 인물의 태도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A]에서 어릴 적에 '나'는 감옥살이를 한 아버지, 장돌뱅이 출신인 자신을 부끄럽게 느낀 적 없이 행복한 아이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나'의 성장 환경을 알 수 있다. [B]에서 '나'는 청소년기에 이르러 자신의 출신을 치부라고 느끼고 있으며,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치부를 들킨 것을 부끄러워하며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② [A]는 '나'가 [B]에 나타난 감정을 경험하는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작품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A]에서는 '나'의 밝고 긍정적인 유년 시절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나'는 자라면서 자신의 치부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어두운 면모를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나'는 [B]에서 다른 인물들과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는 유년 시절에 문학을 접한 적이 없으므로 [A]에서 문학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A]를 회상하는 과정에서 '나'가 자기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다.

## 25.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나'는 친척 집의 서가에서 앤솔러지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시에 눈 뜨게 되고 이후 시를 쓰면서 백일장에서 수상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시 창작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백일장에서 수상하기 이전의 일이다.

### 오답 해설

- ① 친척은 '나'를 붙들고 서가를 자랑하며 자신의 문학 취미에 대해서 가로세로 떠들곤 하였다.'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나'는 친척 집에 숨어 지내는 동안 서가에 꽂힌 소설을 한두 권 읽으면서 처음 문학을 접하게 된다.  
 ④ '도청 소재지에는 남녀 고등학교 문예반에서 한두 명씩 뽑혀 나와 만들어진 문학 동인회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나'는 문학 동인회에서 첫인사를 하던 날에 자신에게 말을 걸었던 여학생에게 얼마 후 편지를 받았고, 그 편지를 화장실에 버렸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26.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나'는 친구가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기 전

부터 친구들이 자신의 치부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 이를 악문 채 고개를 뺏뺏이 세우고 있다. 그러나 결국 한 여학생이 그만 목에 힘을 빼라고 말하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고, 자신이 이미 치부(자신의 출신)를 들켜 버렸다고 느껴 허탈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낀다. 따라서 정상적인 가정의 친구가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가 자신의 출신을 부정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에서 '나'는 '개차반 인생이 그런 이야기로 작가가 되'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는데, 이를 통해 '나'가 자신과 같이 형편없는 인생도 문학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에서 '나'는 '자신의 치부를 낱알이 세상에 까 보일 용기가 없었'기에 자신의 치부를 '감추는 시 쪽이 훨씬 매력적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신의 치부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으면서 문학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를 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③ ㉢에서 '나'는 여학생이 자신에게 동경의 마음을 편지로 전한 것을 결국 철없는 여학생이 자신의 문학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치부에 대한 고뇌로 인해 타인이 보내는 순수한 마음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⑤ ㉤의 '탐미주의 혹은 허무주의'에 빠졌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회의적인 주제를, '세상에 대하여 깊게 병든 한 청년의 문학이 되어 갔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나'가 어두운 주제를 탐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나'에게는 장돌뱅이 출신이자 사생아로 자라온 유년 시절의 기억이 무의식 속에 트라우마로 남았고, 이것이 열등과 결핍이라는 심리적 약점, 즉 '나'의 콤플렉스가 된다. 이후 '나'는 문학 동인회에서 자신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의 콤플렉스가 친구들에게 들키고 말았다고 생각했고, 여학생이 던진 한마디에 친구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허탈감과 분노를 느낀다. 나중에 '나'는 여학생에게 받은 편지를 버리고 그때부터 악한 척 행동하는 '위약'을 자기 삶의 무기로 삼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감추기 위해 '나'가 택한 행동이라 볼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나'는 장돌뱅이 출신이자 사생아로 자라 오면서 유년 시절에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무의식 속에 트라우마로 남는 원인이 된다.  
 ② '사생아'와 '장돌뱅이 출신'이라는 유년의 기억은 무의식에 트라우마가 남게 되는 원인이지 트라우마가 의식의 세계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방어 기제라 볼 수 없다.  
 ③ '위약'은 유년 시절 형성된 '나'의 무의식 속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 트라우마가 의식으로 발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활용한 방어 기제라 볼 수 있다. '나'가 쓴 '시'는 이것이 의식 세계로 변형되어 나타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트라우마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전이 되는 과정에는 이를 가로막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그 결과 트라우마는 꿈이나 문학 작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색을 좋아하'느냐는 '여학생'의 질문에 '나'가 '빨간색'이라고 답한 것은 트라우마가 꿈이나 문학 작품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므로 트라우마가 의식 세계로 전이된 결과물이라 볼 수 없다.

## [28~31] 남영로, 「옥류동」

**[해제]** 이 작품은 몽자 소설의 계보를 잇고 있는 장편 소설이다. 양창곡을 주인공으로 한 군담계의 영웅 소설이면서 치첩 간의 갈등을 다룬 가정 소설, 양창곡과 여러 여인의 사랑을 다룬 애정 소설 등의 다채로운 성격을 갖는다. 구성이 치밀하고 대중적 재미와 문학적 완성도가 높아 고전 소설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으며, 뛰어난 능력과 개성적 면모를 지닌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동시에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주제]** 양창곡의 다섯 여인과의 결연과 영웅적 일생

### [전체 줄거리]

천상계에서 문창성이 술에 취해 지상계를 그리워하는 시를 읊으며 선녀들과 더불어 희롱하고, 이를 안 옥황상제가 문창성은 양창곡으로, 제방옥녀는 윤 소저, 천요성은 황 소저, 홍란성은 강남홍, 제천선녀는 벽성선, 도화성은 일지련으로 각각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한다. 양창곡은 과거 시험을 치르려고 상경하던 중 기녀 강남홍과 인연을 맺고 강남홍의 천거로 윤 소저와도 인연을 맺는다. 이 무렵 소주자사 황 공이 강남홍을 탐하자 강남홍은 강물에 투신하지만 윤 소저에 의해 구출되어 남쪽 탈탈국에 몸을 위탁한다. 양창곡은 황성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강남홍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한다. 양창곡이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자 황 각로와 노 상서가 각각 자기의 딸과 혼인시키기 위해 구혼하지만 양창곡은 이를 거절하고 윤 소저와 혼인한다. 양창곡은 황 각로의 딸과 혼인하라는 천자의 명을 위반한 죄로 하옥되고 노 상서의 모함으로 강주로 유배된다. 이곳에서 양창곡은 기녀인 벽성선을 만나 가연을 맺고 유배 생활에서 풀려난 후 천자의 명령에 따라 황각로의 딸과 결혼하게 된다. 이때 남만이 침공하자 양창곡은 대원수로 출정하고 남만의 원수가 되어 있던 강남홍은 옥적 소리를 통해 명나라 대원수가 양창곡임을 알고 도망쳐 양창곡과 재회한다. 이후 연왕에 책봉된 양창곡은 치첩들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다 천상계로 돌아가 다시 선관이 된다.

## 28.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강남홍은 명나라 진영에서 들려오는 옥적 소리를 듣고 옥적 소리의 주인이 양창곡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는다. 그러면서 옥적의 출처와 천상에서 만난 문창성을 떠올리며 전투를 벌여 명나라의 원수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처럼 강남홍의 독백을 통해 옥적 소리에 관한 의문을 풀어 가는 과정이 제시되고 있다.

### 오답 해설

- ① 강남홍이 '조물주'와 같은 초월적 존재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초월적 존재가 작품에 직접 등장하여 갈등을 중재하지는 않았다.  
 ③ 강남홍과 적장들의 전투 장면에서 일부 과장된 모습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강남홍의 무술 실력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인물의 모습을 희화화하기 위함은 아니다.  
 ④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하고는 있지만 인물의 후일담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⑤ 강남홍이 겪은 일화가 나타나 있지만 주인공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삽화 형식으로 나열되어 있지는 않다.

**29.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강남홍이 옥적 소리를 들으면서 '조물주가 도우시고 보살께서 자비를 베푸셔서'라고 말하는 것은 강남홍이 생각만 한 것으로 실제로 조물주가 나서서 강남홍을 돕고 있음을 알려 주는 사물로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②, ⑤ 강남홍이 '우리 공자님께서 지금 명나라 진중에 원수로 와 계신 것일까?'라고 생각한 것이 계기가 되어 명나라 진영과 전투를 벌이고 양창곡을 만나게 된다. 따라서 옥적이 두 사람이 만나는 계기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강남홍은 '부모의 나라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조용히 옥적으로 장자방이 통소를 붙어서 항우의 병사들인 강동 지역 자제들을 풀어 버린 일을 본받아 전투를 끝내려 했다.'를 통해 볼 때 고국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옥적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이 옥적은 본래 한 쌍이다. 하나는 문창성에게 있다고 한 부분과, '하늘이 옥적을 낳았으며 어찌 한 쌍만을 낳았을 것이며'라는 부분에서 천상에서 문창성과 강남홍이 인연을 맺었음을 알 수 있다.

**30.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부용검을 휘두르며 몇 함 맞붙어 싸웠다. 뇌천풍이 자신의 갑옷을 내려다보니 칼자국이 낭자했다. 그는 싸움 생각이 없어지면서 말을 돌려 돌아갔다.'를 통해 뇌천풍은 강남홍과 맞붙어 싸웠지만 갑옷의 칼자국을 보고 본진으로 돌아갔으므로, 본진에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강남홍이 만왕에게 '대왕은 먼저 병사들을 거느리고 골짜기 앞에 진을 치십시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나타이 응낙하고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라고 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③ 소유경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상대 적장과 싸워 보려는 양창곡에게 명나라의 원수로서 자기 몸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설득한다.

④ 동초는 강남홍과 맞붙어 싸우려고 시도하다가 강남홍이 활을 쏘아 상모를 떨어뜨린 뒤 활로 눈을 맞히겠다는 말을 하자 두려움을 느껴 본진으로 돌아온다.

⑤ 양창곡은 소년의 기상으로 적장(강남홍)의 무예가 절륜한 것을 알고 한번 대항해 보고 싶어서 소유경의 간언을 듣지 않고 말을 달려 출전한다.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④는 강남홍이 양창곡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 주기 위해 싸움을 일부러 멈춘 장면이므로 이 부분에서 남성에게 종속된 유교적 여성상을 확인할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①는 강남홍이 부모의 나라인 명나라 진영과 맞붙어 싸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사에 전해 내려오는 방법을 적용해 보는 장면으로, 이를 통해 강남홍이 병법 지식을 활용하는 지략가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②는 강남홍이 명나라 원수가 양창곡임을 확인하기 위해 전투를 계획하는 장면이다. 이를 통해 강남홍이 인연을 맺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③는 강남홍이 먼 거리에서 화살로 상대의 상모를 떨어뜨릴 정도로 무예 실력 뛰어남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이를 통해 강남홍이 뛰어난 무예 실력으로 남성을 능가하는 능력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⑤는 강남홍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양창곡에게 어떻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냐고 질문하는 부분이다. 이는 강남홍이 남장을 하고 있어 양창곡이 강남홍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으로, 남장을 한 모습으로 전장에 나가는 것을 통해 강남홍이 여성 본연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34]**

**(가) 김시습, 「사청사우」**

**[해제]** 이 시는 잠깐 갠다가 잠깐 비가 오는 날씨를 보고 지은 것으로, 자연 현상에 비추어 인정(人情) 세태(世態)가 변함을 풍자한 시이다. 비가 잠깐 내렸다가 다시 개고, 개는 듯싶더니 다시 비가 오는 것처럼 하늘의 도는 변화가 많은데, 하물며 인정에 있어서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칭찬하는가 했더니 어느새 나를 비방하고 있고, 명성을 피한다고 하더니 어느덧 명성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봄은 상관하지 않고, 구름이 가고 오는 것을 산은 다투지 않듯이 어디서든 즐거울 수 있다면 그것이 평생의 득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주제]** 변덕스러운 인간 세상에 대한 비판과 순리대로 사는 삶에 대한 지향

**[구성]**

- 1~2행: 잦은 날씨 변화와 변덕스러운 세상 인식
- 3~4행: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모습
- 5~6행: 자연의 변화에 의연한 봄과 산
- 7~8행: 공명을 추구하는 세속의 삶에서는 기쁨을 얻을 수 없음.

**(나) 차천로, 「강촌별곡」**

**[해제]** 조선 선조 때의 문인 차천로가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사로서 은거자의 한적한 생활을 노래하고 있다. 산수 간에 은거하면서 안빈한적(安貧閑適)하는 생활을 노래한 것으로 강호기도 계열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주제]** 산수 간에 은거하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즐거움

**[구성]**

- 1~3행: 세상의 부귀공명을 버리고 자연에서 살아가는 흥겨움
- 4~8행: 세속에서 동떨어져 은거하는 삶
- 9~15행: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즐거움
- 16~26행: 자연을 즐기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즐거움
- 27~28행: 세상의 소식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삶

**3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가)는 '반드시 기억해 알아 두라'에서 명령형 문장을 활용하여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을 향한 화자의 단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내일은 물가에서 시를 지어 읊어 보세' 등에서 청유형 문장을 활

용하여 자연을 유유자적 즐겨 보자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 모두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

② (가)에는 비가 오고 비가 개는 상황의 대비는 있지만 색채의 대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나)에 계절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계절의 흐름을 활용해서 주제 의식을 부각한 면은 찾아볼 수 없다.

④ (가)는 날씨의 변화와 자연 현상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에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변화가 모두 드러난다.

**33.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은 공명을 통해 얻는 기쁨은 부질없는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따라서 기쁨은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쾌락에 집착하지 말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은 '나를 기리다가' 돌아서서 '나를 헐뜯는' 사람들을 향한 화자의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에서 '푸른 덩굴 우거진 곳, 흰 구름 깊은 골'은 세상과 단절된 고요한 곳을 의미하며, '대사립'을 단아둔다는 것을 통해 화자는 세상의 소식을 듣지 않고 은거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에서 '귀인이 몸을 신는 수레'는 부귀를 뜻하는 것으로, 화자는 부귀에 뜻이 없고 자연을 즐기며 사는 삶을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의 '뒤엎긴 세상에서 들려오는 기별'은 속세의 소식으로, 화자는 '고기잡이 늙어가는 아랑곳없어라'라고 말하며 속세의 기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가)에서 '하물며 세상 인정이라'는 갑자기 변하는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세상 인정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지만 인정이 사라진 것에 대해 탄탄한 것은 아니다. (나)의 '깊은 인정 높은 지혜 넘치게 하리라'에서는 화자가 은거해서 살아가는 곳을 인정과 지혜가 넘치게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낸 것이지만 세상 전체를 자신이 지내는 것처럼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가)의 '비가 오고 비 오다가 다시 개니'는 변덕스러운 날씨 상황을 통해 쉽게 변하는 세상인심을 보여 주고, (나)의 '봄비 내려 밭을 가니'는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는 화자의 상황을 보여 준다.

② (가)의 '하늘의 도가 그러하거늘'에서는 날씨가 변화하는 대자연 이치를 따르고자 하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의 '물가에서 시를 지어 읊어 보세'는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③ (가)의 '공명을 피하더니 도리어 스스로 공명을 구하는 것이 되네'는 공명을 피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변심하여 공명을 구하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나)의 '세상 공명 하직하고'는 세상의 공명과 작별하였다는 뜻으로 공명에 마음을 두지 않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⑤ (가)의 '산은 다투지 않네'에서 구름이 가고 오는 것에 대해 산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변화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자연

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나)의 '산 좋고 물 좋고 풍치 좋은 이곳에'는 자연에서 살아가는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낸다.

**[화법과 작문]**

**35. 발표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마지막 부분에서 발표자는 청중에게 주변에 존재하는 넋지들을 더 찾아볼 것과 주제적인 선택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1문단에 제시된 질문은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배경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3, 4, 5문단에 나오는 질문 역시 청중의 공감을 얻거나 청중의 이목을 끌기 위한 질문으로, 발표 내용에 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점검하는 질문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발표가 시작되는 1문단에서 발표자가 넋지 효과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1문단에 넋지 효과를 처음 소개한 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와 범플가 캐스 선스타인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넋지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6. 발표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1문단과 3문단 내용을 종합해 보면,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하는 문구는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직접적 개입이며, 화단을 설치한 것은 넋지 효과의 사례에 해당하는 간접적 개입이다.

**오답 해설**

- ① 1문단에서 넋지 효과의 개념을 '팔꿈치로 툭 치는 것과 같은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의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② 2문단에서 넋지 효과가 마케팅에 활용되는 예를 소개하며 고정이 전략에 대한 사례를 들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④ 4문단에서 급식소에서는 메뉴의 종류가 아닌 배열만 바뀌어도 학생들의 특정 음식 소비량이 달라진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⑤ 5문단에서 넋지 효과의 부정적 사례인 다크 넋지를 소개하며 이는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37. 발표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④

**정답 해설**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에서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하며 추가할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발표 내용이 자신의 배경지식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에 언급되지 않았던 공공 정책과 관련된 넋지 효과의 사례를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여 더 알아보고자 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이 넋지 효과가 활용되는 분야 별로 구성된 데 대해 넋지의 성격에 따른 분류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넋지 효과의 사례가 구체적인 통계 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기를 바라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발표 내용의 신뢰성이 보완되기를 바라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넋지 효과의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된 것에 대해 '잘 와닿았다'거나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함으로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38. 설득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②

**정답 해설** (가)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비타민 C 섭취량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 주면서 비타민 C가 부족하다는 통념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코펜하겐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인용은 있으나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중심 화제인 영양제에 대해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없다.
- ④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 ⑤ 학교 학생들이 영양제를 많이 복용한다는 구체적인 사례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일상적인 내용으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사례는 아니다.

**39. 설득 글쓰기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①

**정답 해설** 보고서의 내용은 영양제를 먹는 집단의 사망률이 높다는 것인데, (나)에서는 사망률을 가지고 인과 관계를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에서는 인과 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제의 성분이 사망률을 높인다고 자의적으로 인과 관계를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인과 관계를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주장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② 영양제의 효과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화제와 관련 없는 자료를 선택했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 ③ 2007년 코펜하겐 연구소의 보고서라는 출처를 밝히고 있으며,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자료의 내용과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코펜하겐 연구소의 보고서의 내용을 밝히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장으로만 일관했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영양제는 전 세계인이 복용을 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라는 이유로 신뢰성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0. 대화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④

**정답 해설** ㉠은 초고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온 '학생 3'이 '학생 1, 2'가 글의 결론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다고 하자, 결론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학생 3'은 앞의 내용은 듣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여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재

진술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평가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은 '학생 1'이 관련 정보를 몰라서 '학생 2'에게 묻는 것이다.
- ② ㉡은 '학생 2'가 물음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맥락상 인터넷 검색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은 '학생 1'이 혼잣말로 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문이지만 '학생 2'는 답을 하지 않고, '나도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 ⑤ ㉤은 사망률과 영양제 복용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학생 3'의 말에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41. 대화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④

**정답 해설** [B]에서 '학생 1'은 '영양제를 복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이가.'라고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을 먼저 제시하고, '갑자기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이상했어.'라고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일치점을 먼저 말하여 부각하는 것으로 '찬동의 격률'을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A]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초고가 예상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극대화하는 '관용의 격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부담스러운 내용을 먼저 말하는 것도 관용의 격률과는 관련이 없다.
- ② [A]에서 '학생 2'는 자신이 초고의 방향을 설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③ [A]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자신이 읽어 보았던 것과 달라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논문을 읽은 공통적 경험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 ⑤ [B]에서 '학생 2'는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하는 것은 아니다.

**42. 설득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세계 보건 기구에서 권고한 비타민 C 섭취량은 45mg인데 이 수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500mg은 항산화 효과가 나타나는 제한선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수치를 세계 보건 기구에서 권고한 비타민 C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권고량 이상 먹어도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학생 2'는 영양제의 올바른 복용법이라는 처음의 기획 의도를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그에 맞게 제목을 '영양제, 바로 알고 먹자'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② '학생 2'는 영양제의 오남용이 문제라는 '학생 1'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므로,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그에 맞게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학생 2'는 코펜하겐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에 동의를 하고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고 영양제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글을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⑤ '학생 2'는 글에서 영양제 복용이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대신 영양제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방향으

로 글을 쓰기로 했으므로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 43. 소개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인내심과 끈기를 장점으로 말하고 있으나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친화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지원 동기로 미술실 앞 복도의 그림들을 보며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일을 언급하고 있다.
- ② 이중섭 작가의 〈황소〉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으로 밝히고 있다.
- ④ '내 삶이 빛나는 순간'을 전시회의 주제로 삼아 꿈을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그려 전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⑤ ○○사에서 주최한 미술 대회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 44. 소개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미술 동아리 부원을 예상 독자로 삼아 그림 감상에 대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예상되는 반박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재반박하고 있지 않다.
- ② 좋아하는 그림을 그린 작가를 언급하고 있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하고 있지 않다.
- ③ 글의 첫 부분에 서술할 내용의 순서를 먼저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④ 글의 마지막 부분에 올해 전시회에 대한 제안이 나타나 있으나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 45. 소개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 ①

**정답 해설**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은 역접의 관계인 '하지만'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② 앞 문장의 내용과 반대되는 글쓴이의 생각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했었다는 중심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문장 내에서 '이유'와 호응되는 서술어인 '보았기 때문입니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기대'는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림.'이라는 의미로, 문맥에 따라 '기획'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언어와 매체]

### 35. 자음의 제자 원리

정답 ⑤

**정답 해설** 현대 국어에서 '낯말'이 [낫말]로 변하는 과정

을 보면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낯말'이 된 후, 비음 'ㄹ'의 영향으로 'ㄷ'이 'ㄴ'으로 비음화가 일어난다. 'ㄷ'과 'ㄴ'은 조음 위치가 같으므로 'ㄷ'이 'ㄴ'으로 변하는 비음화 현상은 조음 위치가 변하는 음운 현상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가획자에는 가획을 할 때마다 음성학적 강도가 세진다는 원리가 들어 있다. 'ㅎ'은 'ㅇ'에 획을 하나 더한 것이므로 음성학적 강도가 'ㅇ'보다 세고, 획을 두 개 더한 'ㅎ'보다 약하다.
- ② 조선 후기 이후에 같은 조음 위치에 있던 'ㅅ'과 'ㅈ', 'ㅊ'이 분화되어 'ㅅ'은 설음인 'ㄴ', 'ㄷ'과 조음 위치가 같아지고, 'ㅈ', 'ㅊ'은 경구개음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 국어에서 '세자'를 발음할 때의 두 자음 'ㅅ'과 'ㅈ'은 각각 치조음과 경구개음으로 조음 위치가 다르다.
- ③ 'ㅇ'은 이체자로 가획을 했지만 후음이 아니라 아음이며 울림소리라고 하였다. 따라서 같은 조음 위치의 기본자인 안울림소리 'ㄱ'보다 음성학적 강도가 약하다.
- ④ 'ㄷ'은 'ㅅ'에 가획을 한 것이지만 울림소리로 가획 이전보다 음성학적 강도가 약해진다. 가획을 하면 음성학적 강도가 세진다는 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체자이다.

### 36. 음운의 변천

정답 ③

**정답 해설** '맞히다'가 [마치다]로 발음이 되는 것은 축약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난 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디다>지다'의 변화는 형태소의 경계가 아닌 단어의 첫소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 ② '부처'는 하나의 형태소이다. 그러므로 '브터>부처'의 구개음화는 ㉠에 해당한다.
- ④ '해돋이'의 형태소는 '해+돋+이'로 분석이 된다. [해도지]로 발음이 되는 것은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 ⑤ '더티다'는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구개음화가 활발하던 시기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예이다. 후에 모음이 변하면서 예외로 남게 된 경우이므로 ㉠에 해당한다.

### 37. 겹문장의 종류

정답 ②

**정답 해설** ㉠에서 관형사절은 '낯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이다. 여기에서 '듣고'의 주어는 '새'가이다. '낯말은'은 '듣고'의 목적어이다.

**오답 해설**

- ① ㉠은 안은문장으로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있다'이다. 이 서술어의 주어는 '속담'이다. '낯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을 수식하는 관형사절이다.
- ③ ㉡에서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다했다'이고, 주어는 '그는', 목적어는 '최선을'이다.
- ④ ㉢에서 '되도록'의 주어는 '그는'인데, 문장 전체 주어와 같기 때문에 생략되었다. '배우'는 '되도록'의 보어이다. '배우'를 수식하는 관형사절의 서술어 '좋아하는'의 주어는 '모두'가이다.
- ⑤ ㉣에서 관형사절 '낯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이 문장이 '속담'을 수식하는 관형사절로 사용되고 있다. ㉠에서 '모두

가 좋아하는'은 '배우'를 수식하는 관형사절이다. 관형사절이 포함된 '(그는) 모두가 좋아하는 배우가 되도록'은 '다했다'를 수식하는 부사절이다.

### 38. 새말 만들기

정답 ③

**정답 해설** ㉠은 부사인 '깜짝'이 명사 '쇼'를 수식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우리말의 어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은 명사 '누리'에 접사 '-꾼'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오답 해설**

- ① ㉠은 줄임말로, 접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 역시 '까지', '밭', '구두'라는 어근으로만 형성된 단어이다.
- ② ㉢과 ㉣은 모두 기존에 있는 말을 이용해 새로운 말을 만든 것이다.
- ④ ㉤은 '누리'와 '꾼'이라는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만든 새로운 말이지만, ㉤은 외국어 '갓'과 한자어 '가성비'를 사용하여 만든 새로운 말이다.
- ⑤ ㉥은 어근의 원래 형태인 '가성'을 변화시켜 만든 새로운 말이다.

### 39. 담화의 구성 요소

정답 ⑤

**정답 해설** ㉠에서 선수가 어디로 들어갔는지는 경기장 안과 밖 중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문자로 전하느냐 직접 대화로 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과 ㉢에서 '30분 뒤'와 '내일'은 글을 쓰는 시점과 읽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명확하지 않아 의미가 불명확해진다.
- ② ㉣에서 누리집에 올린 날짜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내일'의 의미가 결정된다. ㉣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의미가 명확하다.
- ③ ㉤에서 '오빠'는 대화의 맥락상 아이의 오빠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청자를 기준으로 지칭한 것이다.
- ④ ㉥에서 '이거'는 무엇을 지칭하는지 불명확하다. 그렇지만 실제 담화 상황에서는 손짓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칭 대상이 분명해진다.

### 40.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정답 ①

**정답 해설** 생방송이 아닌 경우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이 방송 장면에서도 교수나 패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반응을 반영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② 방송에서는 라디오로 보여 주기 어려운 여러 시각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몽타주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방송에서는 동영상과 사진 자료를 함께 보여 주어서 시각 의문과 시각 은폐로 인해 동영상을 볼 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화면 간의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④ 방송에서는 동영상의 재생이 가능하므로 '시각 은폐'와 같이 책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내용도 이해하기 쉽도록 제시할 수 있다.

⑤ 방송 장면에서 교수가 여러 패널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패널들이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시청자도 수업을 함께 듣는 느낌을 만들어 내고 있다.

**41. 매체의 의미 전달 방식**

정답 ②

**정답 해설** ㉠은 시각 의문이 작동하기 때문에 편집 지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예이다. 그렇지만 ㉡의 경우는 몽타주 효과의 예이며, 시각 의문이 작동하는 상황의 예는 아니다. 시각 의문이 작동하는 예가 되려면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뒤의 샷이 앞에 와야 한다.

**오답 해설**

① 패널들은 ㉠에 대해서는 편집 지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을 보고는 화면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에 대해 교수는 ㉠에서는 선택적 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③ 패널들은 ㉡을 보고는 ㉠을 볼 때 보지 못했던 배경까지 인식을 한다. 이에 대해 교수는 ㉠을 볼 때 시각 은폐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④ ㉡은 이질적인 화면을 연결한 몽타주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예이다. ㉡은 같은 화면으로 몽타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과 ㉡은 동영상의 한 부분을 추출하여 사진의 형태로 제시한 슬라이드이다.

**42.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 ②

**정답 해설** [A]에서 '패널 1'은 '영화 속의 과학'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하자, 공상 과학 영화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패널 2'도 교수의 말에 '영화가 여러 샷들을 이어 붙인 것인데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의미를 해석한다. [B]에서 '패널 3'은 '몽타주라면 얼굴 각 부분을 모아서 만든 범인 사진 같은 것 아닌가요?'라고 하면서 몽타주에 대해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에서 교수는 '패널 1'의 말에 자신의 말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화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고'라고 하며 의미를 조정해 주고 있다. [B]에서 '패널 3'은 교수의 물음에 '몽타주라면 얼굴 각 부분을 모아서 만든 범인 사진 같은 것 아닌가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해가 적절한지 묻고 있다. 그러므로 수신자가 이해한 의미를 조정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③ [A]에서 음성 언어를 사용할 때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의미의 해석이 잘못된 경우 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상 매체를 사용할 때 의미를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B]에서 교수와 패널들은 질문에 답변을 한 후 다시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⑤ [B]에서 음성 언어의 수신자는 '이런 원리를 이용한 또 다른 예는 없나요?'라고 하면서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음성 언어를 이용할 때가 영상 매체를 이용할 때보다 용이하다.

**43.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 ④

(나)는 카드 뉴스로, 매 카드에 이미지를 제시하고 (가)

에 비해 간략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매체 수용자가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연재 기사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 소비기한 표시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시의성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관련 사진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② (나)는 식품의 이미지나 식품 섭취 가능 기한에 대한 정보들을 다루고 있으나 식품을 홍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③ (가)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내용들과 관련하여 각각 식품 의약품 안전처와 식품 안전 정보원이라는 출처를 밝히고 있지만 (나)는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다.

⑤ (가)에서 통계가 사용된 부분은 있으나 통계의 수치를 해석해 주는 인물의 인터뷰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44. 문장 성분별 특성**

정답 ①

**정답 해설** ㉠은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에'를 사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한 주체가 식품 의약품 안전처라는 단체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은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소비기한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만, 설정한 주체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은 보조 용언 '-고 있다'를 사용하여 OECD 대부분 국가가 소비기한 표시제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것을 추측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은 연결 어미 '-고서'를 사용하여 관련 법이 먼저 개정되고 나서, 정부가 1년여의 준비를 더 했음을 밝히고 있다.

⑤ ㉤은 앞에서 사용한 표현을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시 관형사 '그'를 사용하고 있다.

**45.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정답 ④

**정답 해설** (가)의 3문단에서 소비자는 8,860억 원, 산업체는 26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 값을 '카드 5'에 그래프로 나란히 배치한다면, 두 그래프의 길이 차이가 커서 하나의 카드 안에는 담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간에 물결선을 넣음으로써 길이의 차이를 해결한 것이다. 따라서 편익이 매년 발생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래프 중간에 물결선을 넣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제목에서 '유통 기한이 가고', '소비 기한이 온다'라는 비유적 표현에 사용되었다. 이를 '카드 1'에서는 시행 시기와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는 유통 기한 대신에 소비 기한이 표시됩니다!'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② (가)의 1문단에 '유통 기한이 하루나 이틀 지났을 때 이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고민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카드 2'에서는 '고민해 본 적 없나요?'라는 형식의 말을 건네는 방식의 문구와 고민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였다.

③ (가)의 2문단에서 상온 식품, 냉장 식품, 냉동식품에 적합한 보관 온도를 지켜야 된다고 했으나 각각의 적합한 보관 온도 값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를 '카드 4'에서는 세 종류의 식품에 대한 적합한 보관 온도 값을

보완하여 표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⑤ (가)의 4문단에 소비기한 표시제가 잘 정착이 된다면 소비자의 혼란도 방지하고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다는 앞으로의 기대감이 언급되어 있다. 이를 '카드 6'에서는 웃음을 선으로 단순화시켜 여러 식품과 함께 표현하였다.

## 제 2 회

### 정답

1	③	2	①	3	①	4	①	5	③
6	⑤	7	②	8	②	9	⑤	10	③
11	④	12	⑤	13	②	14	④	15	⑤
16	⑤	17	②	18	⑤	19	④	20	④
21	③	22	⑤	23	③	24	⑤	25	⑤
26	③	27	②	28	④	29	④	30	④
31	②	32	⑤	33	③	34	①		

### [화법과 작문]

35	④	36	⑤	37	③	38	②	39	④
40	①	41	⑤	42	④	43	③	44	②
45	①								

### [언어와 매체]

35	③	36	⑤	37	②	38	②	39	①
40	③	41	③	42	②	43	④	44	①
45	②								

### 해설

#### [1~6]

##### (가) 소쉬르와 퍼스의 기호학

**[해제]** 기호학은 기호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소쉬르와 퍼스는 각자 다른 개념을 제시하며 기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소쉬르는 기호란 기표와 기의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기표와 기의의 결합은 자의적이지만 주로 사회적 관습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퍼스는 기호를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했고, 기호의 해석은 사회적 관습에 따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 따라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주제]** 기호학에 관한 소쉬르와 퍼스의 견해

#### [구성]

- 1문단: 기호학의 의미
- 2문단: 소쉬르의 기호학
- 3문단: 퍼스의 기호학

##### (나) 바르트의 기호학

**[해제]** 소쉬르의 언어학을 이어받아 기호학을 발전시킨 바르트는, 겉으로 드러난 기호의 의미인 외연적 의미 외에 특정 문화권 속에서 통용되는 의미인 함축적 의미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바르트는 함축적 의미가 그 기호가 사용되는 사회의 권력관계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보았고, 함축적 의미가 형성되면 그 문화권 안에서 사는 이들에게는 외연적 의미처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를 신화라고 불렀다. 그는 이 신화를 분석할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이후의 문화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주제]** 기호학에 관한 바르트의 견해

#### [구성]

- 1문단: 바르트가 설명한 신화의 의미
- 2문단: 기호가 신화가 되는 과정
- 3문단: 신화 분석의 방법과 의의

#### 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 ③

**정답 해설** (가)와 (나)는 모두 기호학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의 내리고 있으며, (가)와 (나) 모두 유추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해설

①, ④ (가)는 기호에 관한 소쉬르와 퍼스의 견해를, (나)는 기호에 관한 바르트의 견해를 글의 화제로 설명하고 있다.

② (가)는 소쉬르의 기호학을 사과라는 사례로, 퍼스의 기호학을 장미라는 사례로 설명하고 있고, (나)는 바르트가 말한 기호의 의미에 대하여 매화의 의미가 특정 문화권에 따라 달라지는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⑤ (가)의 2문단에서 소쉬르의 기호학이 소개되어 있고, (나)의 1문단에서 바르트는 소쉬르의 기호학을 계승하였다고 하였다.

#### 2.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나)의 1문단에서 바르트는 외연적 의미를 가진 기호가 아니라 함축적 의미를 가진 기호를 신화라 했다. 또한 그가 말하는 신화란 현대 문명의 온갖 현상들이 마치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신화와 같이 익숙해져서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끔 만드는 뜻으로 사용된 변형된 개념이다.

#### 오답 해설

② (나)의 3문단에서 메타언어란 언어를 설명하는 언어로 마치 사전에서 어떤 단어의 의미를 '다른 단어'를 통해 설명할 경우에 '다른 단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③ (가)의 1문단에서 현대의 기호학은 영국에서는 소쉬르에 의해, 미국에서는 퍼스에 의해 전개되었다고 하였다.

④ (가)의 3문단에서 퍼스는 기호를 표상체와 대상체, 그리고 해석체의 결합으로 보았고, 이때 표상체란 대상을 대신 나타내는 기호의 형태이고, 대상체는 표상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⑤ (나)의 3문단에서 바르트는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분석하여 그 배후에 존재하는 권력관계를 폭로하는 작업을 신화 분석이라 하였고, 이는 신화에 대해 메타언어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가)의 3문단에서 상징 기호는 표상체와 대상체 간에 물리적 유사성이나 인과성이 없고, 사회적 약속이나 관습적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호라고 하였다. 종이에 쓰인 숫자는 아홉 개와 시각 또는 청각과 같은 물리적 유사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약속이나 관습적 문화에 의한 것이므로 상징 기호이다.

#### 오답 해설

② 감기가 원인이 되어 그 증상 중 하나인 콧물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표상체와 대상체 간에 인과 관계를 가지므로 지표 기호에 해당한다.

③ 약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었다면, 표상체와 대상체 간에 시각과 같은 물리적 유사성을 공유한 것이므로 도상 기호에 해당한다.

④ 바람이 부는 방향이 원인이 되어 풍향계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표상체와 대상체 간에 인과 관계를 가지므로 지표 기호에 해당한다.

⑤ ×라는 표시가 '거부하다'의 의미를 지닌 것은 사회

적 약속이나 관습적 문화에 의한 것이므로 상징 기호이다.

#### 4.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보기>에서 경례는 국가에 대한 경의와 공경의 의미라는 사전적 의미를 동작으로 나타낸 것이라 하였으므로 경례는 기표이고, 국가에 대한 경의와 공경의 의미는 외연적 의미이자 기의가 된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차원이므로 ㉠은 'a. 기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성된 기호는 자국에 대한 봉사라는 기의와 결합한 것인데, 기존의 외연적 의미를 갖고 있는 기호를 기표로 삼아 여기에 새로운 기의를 부착한 것이므로 ㉡는 'II. 기의'에 해당한다. 그 결과 함축적 의미를 지닌 기호, 즉 신화가 만들어졌으므로 ㉢는 'III. 기호'에 해당한다.

#### 5.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가)의 3문단에서 퍼스는 표상체의 해석이 사회적 관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 따라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보기>의 (ㄴ)에서 갑과 을은 모두 연기라는 동일한 표상체를 보았으나 해석이 각각 달라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 것이다.

#### 오답 해설

① (가)의 2문단에서 소쉬르는 하나의 기표가 다수의 기의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고, <보기>의 (ㄱ)에서 사과라는 기표는 여러 개의 기의를 가지고 있다.

② (가)의 2문단에서 소쉬르는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 자의적이지만 우리가 대체로 성공적인 소통이 가능한 것은 주로 사회적 관습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보기>의 (ㄷ)에서 병이 오래전부터 해 왔던 고백 방식에 따른 것은 사회적 관습에 의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나)의 1문단에서 바르트는 기호의 의미를 외연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로 구분하였다. <보기>의 (ㄱ)에서 사과의 사전적 의미는 외연적 의미, 맥락에 따른 의미는 함축적 의미라 할 수 있다.

⑤ (나)의 1문단에서 바르트는 기호의 함축적 의미가 그 기호가 사용되는 사회의 권력관계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보았다. <보기>의 (ㄷ)에서 장미는 함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여성이 남성에게 장미를 주면 어색한 상황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 의미가 사회의 권력관계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6.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배후(背後)'는 '어떤 일의 드러나지 않은 이면.'이라는 의미이다. '처하여 있는 사정이나 형편.'은 '처지(處地)'이다.

#### [7~12]

**[해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기한 내에 빚을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

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유치권, 저당권, 가압류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끝내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담보물을 경매로 매각해 빚을 받아야 한다. 경매를 했을 때 낙찰가가,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액의 합인 총채권액보다 크면 채권자는 충분히 변제를 받게 되고 남은 것은 경매 당시의 소유자에게 배당이 된다. 그러나 채권자 중 누군가에게는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도 있는데, 이때는 배당 순위 규칙에 따른다. 채권자 모두 저당권자라면 순위 배당을 하고, 채권자 모두 가압류자라면 안분 배당을 하고, 가압류와 저당권이 혼재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안분 후 흡수 배당을 통해 배당이 완성된다.

**[주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

**[구성]**

- 1문단: 유치권의 의미
- 2문단: 저당권의 의미
- 3문단: 가압류 및 경매의 의미
- 4문단: 순위 배당과 안분 배당의 의미와 사례
- 5문단: 안분 후 흡수 배당의 의미와 사례

## 7.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3문단에서 채권자가 경매를 법원에 요청하면 법원은 담보물을 공개적으로 매각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원에 경매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2문단에서 저당권은 등기해야 하는 권리이므로 민법상으로 동산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본다고 하였다.
- ③ 3문단에서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입찰이라 하고, 입찰 가격이 내정 가격에 미달되면 유찰되었다고 한다고 하였다.
- ④ 3문단에서 채권자가 담보물에 가압류를 등기하면, 채무자가 담보물을 매각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였다.
- ⑤ 2문단에서 저당권은 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담보물을 매각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라고 하였다.

## 8. 숨겨진 전제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3문단에서 경매를 했을 때 낙찰가가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액의 합인 총채권액보다 크다면, 채권자는 충분히 변제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낙찰가가 총채권액보다 작으면 채권자는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오답 해설**

- ① 4문단과 5문단으로 미루어 볼 때, 채무자가 배당을 못 받은 것은 남은 돈이 없어 배당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일 뿐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③ 입찰자가 제시한 최고 금액이 해당 부동산의 총채권액을 넘는 경우라면 채권자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④ 3문단에서 빚이 변제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경매를 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기한 내에 돈을 갚았다면 경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 내용이 ⑦의 이유로는 볼 수 없다.
- ⑤ 4문단과 5문단을 통해 안분 배당과 순위 배당은 채권자의 권리의 종류나 등기된 순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채권액과 낙찰가의 금액 차이로 배당의 형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9.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4문단에서 안분 배당은 총채권액 대비 채권액의 비율인 '낙찰가×(채권액/총채권액)'에 따라 배당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낙찰가가 1천만 원 더 높아질 경우 배당액은 자신의 채권액의 비율에 비례해서 증가하므로, 증가한 금액은 세 명 모두 다르다.

**오답 해설**

- ① 순위 배당에서 을은 낙찰가 5천만 원일 때 자신의 채권액만큼 받을 수 있었으므로, 낙찰가가 7천만 원이 되더라도 을의 배당은 변화가 없고 병의 배당만 2천만 원 증가한다.
- ② 순위 배당에서 갑이 을보다 우선권이 있었던 것은, 모두 저당권자라서 등기된 순서로 우선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의 등기된 순서가 을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 ③ 안분 배당에서는 등기된 순서의 우열을 없애기 때문에, 병이 갑보다 우선권이 있었다는 선지의 진술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안분 배당은 총채권액 대비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되므로, 낙찰가가 2천5백만 원이 되더라도 갑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10.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갑은 빚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려는 것이므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1문단에서 유치권은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그동안 권리가 유지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③에서 가압류라고 한 것과 등기를 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1문단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기한 내에 빚을 변제해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을이 채무자이고 갑은 채권자이다.
- ② 1문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채권자는 건물로 인해 발생한 돈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④ 1문단에서 유치권은 사전에 합의가 없어도 이 권리는 성립한다고 하였다.
- ⑤ 1문단에서 채권자가 유치권을 이유로 점유하는 동안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그 건물을 타인에게 대여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 11.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안분 배당으로 A, B, C는 2천만 원이 배당되고 가압류자 A의 배당은 확정된다. 그리고 저당권자 B는 충분한 배당을 받지 못했고, B는 가압류자 C보다 우선권이 있으므로 C에서 2천만 원을 흡수한다. 즉 B는 4천만 원, C는 0원을 받게 된다.

**오답 해설**

- ① 모두 저당권자라면 등기된 순서로 우선권을 준다. 따라서 A는 4천만 원, B는 2천만 원을 받지만 C는 0원을 받게 된다.
- ② 모두 가압류자라면 등기된 순서와 무관하게 같은 순위로 본다. 이때는 안분 배당이 되므로 B는 '6천만 원×(4천만 원/1억 2천만 원)'을 한 결과 2천만 원을 배당받게 된다.
- ③ 저당권자 A는 가압류자인 B와 C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따라서 A는 4천만 원을 배당받게 된다. 그리고 남은 돈 2천만 원은 B와 C가 안분 배당하여 각각 1천만 원을 배당받게 된다.

⑤ 저당권자는 자신보다 등기가 늦은 가압류자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따라서 가압류자 C에 비해서는 저당권자인 A와 B가 우선권을 갖고, 등기가 빠른 A가 B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따라서 A는 4천만 원, B는 2천만 원, C는 0원을 받게 된다.

## 12. 단어의 문맥적 의미

정답 ⑤

**정답 해설** 이 글의 ㉔와 ㉕의 '거치다'는 모두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앓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 ① 기본형 '받다'는 '빚, 별, 열이나 바람 따위의 기운이 닿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㉔는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기본형 '들다'는 '날이 날카로워 물건이 잘 베어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㉕는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사실을 가져다 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기본형 '팔다'는 '주의를 집중하여야 할 곳에 두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㉔는 '값을 받고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남에게 넘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기본형 '나누다'는 '말이나 이야기, 인사 따위를 주고받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㉔는 '몫을 분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3~17]

**[해제]** 쌍성은 두 개의 별이 인력으로 결합하여 주기적으로 공전하는 천체를 말한다. 이러한 천체들은 관측 방법에 따라 안시 쌍성, 분광 쌍성, 식쌍성으로 나뉜다. 안시 쌍성은 우리 시선 방향과 쌍성의 공전 궤도면이 이루는 각도가 크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볼 때 두 개의 별로 나뉘어 보인다. 반면 분광 쌍성은 안시 쌍성보다 각도가 작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볼 때 하나의 별로 보이지만, 별의 파장을 스펙트럼에 흡수시켜 보면 두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펙트럼에서는 두 개의 흡수선이 좌우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이동하며, 이는 두 개의 별이 서로 주기적으로 공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식쌍성은 분광 쌍성보다 각도가 더 작아서 망원경으로 보면 밝기가 변하는 하나의 별로 관측된다. 이는 한쪽 별의 앞면을 다른 별이 지나가는 현상이 일어나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 별이 다른 별을 가리면서 지나가면 가려지는 면적만큼 밝기가 줄어든다. 쌍성의 기원에는 포획설과 초기 발생설 두 가지 가설이 있다. 연구자들은 성단에서 쌍성을 찾아냈는데, 대부분은 산개 성단에서 발견되어 초기 발생설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주제]** 쌍성의 관측 방법과 탄생과 관련한 가설

**[구성]**

- 1문단: 쌍성의 의미 및 주기와 밝기의 특징
- 2문단: 안시 쌍성의 의미와 관측 방법
- 3문단: 분광 쌍성의 의미와 관측 방법
- 4문단: 식쌍성의 의미와 관측 방법
- 5문단: 쌍성의 탄생에 관한 포획설과 초기 발생설

### 13. 중심 내용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4문단에서 식쌍성의 예로 알골을 설명하고 있는데 2.2등급에서 3.5등급 사이로 밝기가 변한다는 것은 제시되어 있지만, 밝기가 변화하는 주기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5문단에서 성단이란 친구 위에 군데군데 몰려 있는 항성의 집단이라고 언급하였고, 성단의 종류를 구상 성단과 산개 성단으로 구분하였다.
- ③ 4문단에서 별의 밝기는 표면 온도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 ④ 3문단에서 분광 쌍성은 우리의 시선 방향과 쌍성의 공전 궤도면이 이루는 각도로 인해 망원경으로 보면 하나로 보이므로, 별의 파장을 스펙트럼에 흡수시켜 보아야만 쌍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⑤ 2문단에서 쌍성은 관측되는 방법에 따라 안시 쌍성, 분광 쌍성, 식쌍성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 14.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3문단에서 두 별이 동시에 시선 방향을 가로질러 움직일 때는 두 흡수선이 서로 겹쳐서 나타나는데, 쌍성이 한 번 공전할 때 두 별이 동시에 시선 방향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경우는 두 번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M1과 M2가 한 번 공전하는 동안 스펙트럼에서 두 개의 흡수선은 두 번 겹쳐진다.

#### 오답 해설

- ① 1문단에서 두 별의 거리가 멀수록 공전 주기는 길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거리가 짧을수록 쌍성의 공전 주기는 짧아진다고 할 수 있다.
- ② 1문단에서 두 별의 질량의 합이 작을수록 공전 주기는 길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질량을 합한 값이 클수록 공전 주기는 짧아진다고 할 수 있다.
- ③ 1문단에서 질량 중심은 질량이 큰 별 쪽에 더 가까이 위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질량 중심은 질량이 작은 쪽 기준으로는 더 먼 곳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3문단에서 관측자와 가까워지는 별의 흡수선은 청색 쪽으로, 멀어지는 별은 적색 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 15.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⑤

**정답 해설** <보기>에서 2등급인 a 별의 주위를 6등급인 b 별이 공전하는 것은 망원경으로 관측된다고 하였으므로 a와 b로 구성된 쌍성은 안시 쌍성에 해당한다. a1과 a2라는 두 개의 별이 공전하는 것은 스펙트럼을 통해 관측되므로 분광 쌍성에 해당한다. 3문단에서 우리의 시선 방향과 쌍성의 공전 궤도면이 이루는 각도는 안시 쌍성보다 분광 쌍성이 더 작다고 하였다.

#### 오답 해설

- ① 1문단에서 별의 밝기 정도는 등급으로 나타내는데, 이 숫자가 클수록 어두우며 한 등급에 해당하는 밝기 차는 약 2.5배라 하였다. a 별은 2등급이고 b 별은 6등급이므로 b 별은 a 별보다 2.5배 이상 어둡다.
- ② 1문단에서 쌍성을 이루는 한쪽이 또 쌍성인 경우, 이를 삼중 쌍성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북극성은 a 별의 주위를 b 별이 공전하고 있고, a가 b보다 밝으므로 주성이다. 그리고 주성인 a 별은 다시 a1과 a2라는 두 개의 별이 공전하는 상태이므로 삼중 쌍성이라 할 수 있다.
- ③ 2문단에서 두 별이 거리가 매우 멀어서 인력으로 결합된 것도 아닌데, 같은 방향에 있어 한 쌍의 별처럼

보이는 경우는 안시 쌍성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만약 인력으로 결합되었으면 공전 주기가 관측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④ 2문단에서 북두칠성의 6번째 별을 구성하는 미자르와 알코르는 지구에서는 약 80광년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 북극성은 지구에서 800광년 떨어져 있으므로 북극성이 지구에서 더 멀다.

### 1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⑤

**정답 해설** 4문단에 따르면 식쌍성은 우리의 시선 방향과 쌍성의 공전 궤도면이 이루는 각도가, 안시 쌍성이나 분광 쌍성보다 작아 0에 가까워 식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식 현상이란 한쪽 별의 앞면을 다른 별이 지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식쌍성을 망원경으로 관측해보면 밝기가 변하는 하나의 별로 관측된다. 식쌍성은 한 번 공전하는 동안 두 번 어두워지게 된다. <보기>가 식쌍성의 한 주기 광도를 나타낸 것은 <보기>의 그래프에서 곡선이 아래로 두 번 내려가기 때문인데, 세로축의 숫자는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이고 1문단에 따르면 이 숫자가 클수록 어둡다고 하였으므로 곡선이 아래로 내려가는 t2와 t4는 다른 구간에 비해 어둡다고 할 수 있다. 한편 4문단에서 식쌍성의 주극소란 저온의 별이 고온의 별을 가려서 가장 어두워진 때를 말한다고 하였고, 북극소는 고온의 별이 저온의 별을 가려서 약간 어두워진 때를 말한다고 하였다. <보기>의 광도 곡선에서 t2일 때 가장 어두우므로 주극소가 되며, t4일 때는 t1이나 t3에 비해 약간 어두워졌으므로 북극소가 된다.

#### 오답 해설

t1과 t3가 다른 구간에 비해 밝은 것은, 두 별이 좌우로 나란히 있어서 서로 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구간에서는 두 별의 밝기가 합쳐져서 다시 밝게 관측이 된다.

### 17.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 ②

**정답 해설** 5문단에서 포획설은 우연히 다른 별과 가까워져서 서로의 인력이 작용하는 범위로 들어가 두 별이 가까워져서 쌍성이 된다는 것이다. 구상 성단이 산개 성단보다 별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다른 별과 가까워지기 쉽다. 하지만 산개 성단에서 쌍성이 더 많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포획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5문단에서 거의 모든 쌍성은 젊은 별이 있는 산개 성단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하였다. 쌍성은 어린 별과 젊은 별에서 모두 비슷한 비율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③ 포획설에서는 별이 우주 공간을 움직이다가 다른 별을 만나서 서로의 인력이 작용하는 범위로 들어가 쌍성이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선지의 내용은 포획설을 지지하는 주장이다.
- ④ 5문단에서 초기 발생설은 가스의 구름이 응집하면서 별을 이룰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둘로 나뉘어 쌍성이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가스의 구름이 응집되었다가 둘로 나뉘는 조건이 무엇인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초기 발생설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주장이다.
- ⑤ 망원경을 통한 관측 기술이 현재보다 발달하면 쌍성은 지금보다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은 두 성단의 쌍성을 찾는 데 모두 유리한 영향을 주므로 포획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는 볼 수 없다.

### [18~21] 작자 미상, 「장끼전」

**[해제]** 「장끼전」은 판소리 「장끼 타령」이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로 장끼가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고 콩을 먹다가 밧에 걸려 죽는 전반부와, 혼자 된 까투리가 여러 새들의 청혼을 물리치고 다른 장끼에게 개가(改嫁)를 하는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다. 장끼의 죽음을 암시하는 꿈 이야기를 하며 말하는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죽어 가는 장끼의 모습에서 가장 권위에 기댄 오만과 난폭성에 대한 풍자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장끼는 죽어 가면서도 까투리에게 수절을 요구하며 가부장적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데 이는 남성 우월 의식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작품의 서두에서 꿩이 포수와 사냥개에게 걸렸다면 잡혀 부자들이 먹는 음식이 되고 꿩의 깃은 사령기를 치장하거나 먼지떨이로 쓰인다고 서술한 부분을 통해 꿩이 지배층의 수탈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장끼가 콩 하나를 하늘이 내려 준 복으로 여긴다거나, 염치보다는 먹는 것이 으뜸이라고 한 부분을 보아 장끼와 까투리는 굶주림을 참으면서 떠돌아다니는 조선 후기 하층 유랑민에 속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작품 후반부에서 까투리가 혼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러 새들이 까투리에게 청혼하는 것은 남편을 잃고 혼자된 까투리를 만만하게 보고 희롱하는 것으로 하층 여성이 겪는 비극적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까투리는 수절을 명분으로 구혼을 거절하다가 홀아비 장끼의 제안에 유유상종(類類相從)을 명분으로 개가한다. 까투리의 개가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 및 여성의 자아실현이라는 진보적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남존여비(男尊女卑)와 개가 금지라는 당시의 유교 윤리를 비판하고 풍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제]** 남존여비 사상과 여성의 개가 금지에 대한 비판과 풍자

#### [전체 줄거리]

임동설한에 굶주린 장끼와 까투리가 자식들을 거느리고 먹이를 찾아 산기슭으로 향하는데 장끼가 땅에 떨어진 붉은 콩 한 알을 발견한다. 불길한 예감이 든 까투리는 꿈 이야기와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며 콩을 먹지 말라고 간절히 만류하지만 장끼는 고집을 꺾지 않고 그 콩을 먹으려다 밧에 걸리고 만다. 장끼는 까투리에게 수절하여 정벌부인이 되어 줄 것을 유언으로 남긴 채 죽고, 까투리는 장끼의 깃털 하나를 주워 장례를 치른다. 까투리가 남편을 잃었다는 말을 듣고 조문 온 까마귀, 부엉이, 물오리 등이 까투리에게 청혼하나 까투리는 이를 거절하고 홀아비 장끼를 본 후 유유상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가하고, 자식들을 모두 혼인시킨 뒤 물에 들어가 조개가 된다.

### 18.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까마귀와 부엉이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본 외기러기는 그들을 꾸짖으며 자신이 진정한 어른임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자신이 까투리의 남편감으로 적절하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해설

- ① 소리개는 꿩 새끼를 잡아먹으려 하였으나 '너울너울 춤을 추다가' 꿩 새끼의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 ② 까마귀는 까투리는 상부하고 자신은 상처한 비슷한 처지임을 이유로 들며 까투리에게 청혼하였다.
- ③ 부엉이는 까마귀의 몸뚱이가 검고 주둥이도 고약하다고 이야기하며 까마귀의 행동이 부적절함을 지적하

었다.

④ 물오리는 '통혼도 하지 않은 채', '궁합도 보지 않고' 혼인을 강행하고자 하였으나 까투리가 반발하며 제지하였다.

### 19.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 ④

**정답 해설** ㉔은 까마귀가 역사적 인물(남월왕 구천 - '와신상담'의 고사 주인공)과 자신의 외모가 유사하다는 근거를 들어 자신도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으니 무시하지 말 것을 주장한 것이다. 즉 해당 부분에서 까마귀가 남월왕 구천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오답 해설

① ㉑은 대구법을 활용하여 소리개가 앞서 언급한 '인간 제일미'에 견줄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한 것이다. 이를 통해 소리개는 자신이 잡은 '인간 제일미'인 꿩 새끼가 가치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② ㉒은 까마귀가 설의법을 활용하여 장끼와 달리 자신은 그런 콩을 보아도 먹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까투리에게 자신의 신중함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③ ㉓에서 '꽃 본 나비', '물 본 기러기'는 까투리를 본 까마귀 자신을 빗대어 나타낸 것으로, 까투리와 혼인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⑤ ㉕은 '웅웅명인', '관관저구'라는 『시경』의 구절을 인용하여 물오리의 혼인 준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 20.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A]에서 소리개는 망심하여 꿩 새끼를 놓쳐 버렸지만, 일부러 대상을 놓아준 '관공'과 '연 장군'의 일화를 언급하면서 자신 역시 적선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자신이 한 실수를 선행으로 위장하고 있다. [B]에서 까마귀는 수절하겠다는 까투리에게 사람도 개가하는데 미물인 까투리가 수절할 수 있겠냐고 비난하며 까투리에게 청혼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청혼을 거절한 까투리에게 화를 내고 있다.

#### 오답 해설

① [A]는 소리개가 자신의 경솔함을 반성하는 말이라고 볼 수 없고, [B]에서 까마귀가 까투리의 무지함을 질책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② [A]는 소리개가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B]에서 까투리에 대한 까마귀의 불신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A]에서 소리개가 먹이를 놓친 자신의 모습을 호탕하고 여유롭다고 포장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까마귀가 까투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A]에서 소리개가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B]에서 까마귀는 까투리에 대한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21.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까마귀가 자신을 조롱하는 부영이의 말을 되받아치고 있지만, 까마귀가 부영이에게 '눈이 우묵하고 귀만 좋겠지냐'고 말하는 부분을 고려할 때, 까마귀가 외모를 기준으로 부영이보다 나이가 많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해설

① 부영이는 까마귀에게 어른인 자신에게 인사하라고 이야기하며 어른 대접을 요구하였으나 까마귀가 반발하였으므로 부영이는 까마귀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② 부영이의 말에 까마귀가 반발하며 대꾸하는 부분에서 나이 자랑에 참여하는 부영이와 까마귀의 대결 양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④ 까마귀는 부영이에게 '옛글도 모르면서 어찌 진짜 어른을 꾸짖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학식이 있어야 진정한 어른이며 옛글을 아는 까마귀 자신이 진짜 어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⑤ 외기러기는 한나라 때 자신이 천자에게 편지를 전달했다는 개인적인 체험을 들어 자신의 나이를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

### [22~27]

#### (가) 김승옥, 「염소는 힘이 세다」

**[해제]** 이 작품은 염소의 죽음을 계기로 세상의 힘 앞에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고통스럽게 성장해 가는 소년의 모습을 그린 성장 소설이다. 어린 소년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이 소설은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당시 사회가 지닌 폭력적인 힘의 구조를 드러낸다. 아버지가 부재하는 소년의 집안에는 염소를 제외하고 힘이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어머니는 아프고, 누나는 추행을 당하고, 할머니의 장사에는 걸림돌이 많다. 염소가 죽고 자신의 왜소함과 자신을 둘러싼 물신화된 현실이 가진 힘의 질서를 함께 느끼면서 조금씩 성장을 해 가는 소년의 내면 의식을 섬세한 문체로 표현한 작품이다.

**[주제]** 염소의 죽음으로 인한 소년의 상실감과 의식의 성장

#### [전체 줄거리]

열두 살 소년인 '나'는 할머니, 어머니, 누나와 함께 서울 변두리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다. 어느 날 '나'의 염소가 옆집의 생사탕 화로를 깨뜨리자 옆집 아저씨는 화가 나서 염소를 때려 죽인다. 염소를 땅에 묻으려 하자 옆집 아저씨는 '염소탕'을 만들어 팔라고 권한다. 할머니는 집에서 염소탕을 팔아 돈을 벌게 되고, 거기에 술도 함께 팔게 되면서 단골이 많아진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단골이었던 남자가 누나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그러던 중 불법으로 염소탕 장사를 한 일이 경찰에 적발되어 가게는 문을 닫게 되고, 누나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나 합승 버스의 차장으로 취직하게 된다. '나'와 할머니는 누나가 탄 합승 버스를 기다리며 기뻐하고, '나'는 염소가 죽어서도 힘이 세다고 생각한다.

#### (나) 유치진, 「소」

**[해제]** 이 작품은 선량한 소작농인 국서네 집안의 소를 매개로 1930년대 농촌의 구조적 모순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의 비극적인 삶을 그려 내고 있다. 오랜만에 풍년이 들었지만 농민들은 이번 풍년으로 인해 그동안 쌓인 빚을 모두 갚아야 할 처지가 되며, 그에 따라 결국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심지어는 귀찬이네는 빚을 갚기 위해 자식을 팔기까지 하며, 여기에 마름의 교활한 횡포로 농민들의 꿈과 소망이 모두 좌절되고 만다. 그러나 이 작

품은 이러한 비극적인 삶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희극적인 요소가 비극성을 한층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제]** 일제 강점기의 농촌 생활의 참담함

#### [전체 줄거리]

• 제1막: 국서네 농촌 마을은 오랜만에 풍년이 들어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타작하기에 여념이 없다. 국서는 소를 가진 것을 긍지로 삼고, 아들보다 더 애지중지한다. 아들 개똥이는 만주에 가서 일확천금을 모을 궁리를 하면서 소를 팔아 노자를 마련해 달라고 조르고 말뚝이는 마을 처녀인 귀찬이가 농사 빚 때문에 일본으로 팔려 가야 할 신세가 되자 소를 팔아 그 빚을 갚아 주고 귀찬이와 결혼시켜 달라고 조른다.

• 제2막: 국서네는 결국 빚을 얻어 귀찬이네 빚을 갚아 주기로 하고 말뚝이와 결혼시키려고 한다. 개똥이는 소를 몰래 팔아 만주로 떠날 궁리를 한다. 국서네는 돈을 빌리기가 어렵게 되자, 결국 소를 팔기로 결심을 한다. 그러나 마름이 나타나 밀린 빚 대신에 소를 끌고 가 버린다. 소가 다시 혼자 돌아오자 국서네는 소를 대견하게 여기며 숨기려 하나 결국 마름이 나타나 소를 다시 끌고 간다.

• 제3막: 귀찬이는 결국 일본으로 팔려 가고, 국서는 소를 찾기 위해 마름과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하나 소작인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고 절망한다. 말뚝이는 지주네 곳간에 불을 지르고 주재소에 붙잡혀 간다. 잡혀간 소는 마름을 들이받고 집으로 돌아온다.

### 22.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염소는 힘이 세다」라는 문장을 변형하여 반복함으로써 소년에게 염소는 힘의 상징이었다는 것과, 염소가 죽은 후 힘센 이들이 많은 현실과 부딪히며 성장해 가는 소년의 내면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 오답 해설

① (가)에서 공간적 배경의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한 묘사와 나열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서술자가 장면에 따라 바뀌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에서는 염소탕 장사가 단속반에서 적발되는 장면과 할머니와 '나'가 누나의 합승 버스 회사 취직을 기뻐하는 장면만 제시될 뿐 유사한 성격의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현재형 문장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2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단속을 무시하고 불법 장사를 계속하라는 아저씨의 말을 '나의 가족들이 따르지 않은 것은 외부 세계로 표상되는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그것을 대항할 힘이 자신들에게는 없다고 생각해서이다. 따라서 신화적인 낙원의 세계를 지향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은 권력을 가진 단속반으로 주인공과 대비되며 힘을 가진 외부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가 무서움에 질려서 비틀비틀거린 것은 주인공이 가진 어리고 미성숙한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 묘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염소가 죽고 나서 외부 사람들이 집에 드나들고, 단속반이 와서 가족들에게 염포를 놓고 누나가 추행을 당하는 등 주인공의 가족들은 외부 세계의 폭력에 시달리게 된다. 이에 주인공은 염소가 죽자 집에 힘센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의 무기력함을 자조하는 부분으로, 자신이 속한 세계의 나약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⑤ 자신을 추행한 남자의 도움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누나를 보며, '나'가 할머니와 함께 기뻐하는 장면과 함께 그녀가 돈을 벌어서 올 수 있게 된 것을 힘이 세졌다고 표현한 것은 '나'가 순수함을 잃고 세속에 물들어 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24.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국진의 여러 가지 대화 중에 소를 팔지 않아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났을 때 국서가 지녀야 할 책임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국진의 첫 번째 대화 속에서 소를 팔지 않고 돈을 빌렸을 경우를 가정하나 결국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소를 팔아야 하는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국진의 세 번째 대화 속에서 국서의 주장에 대한 공감을 표하면서도 소를 팔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국진의 네 번째 대화 속에서 내년부터 법령이 바뀌면 지주들이 이를 좋은 기회로 이용해 소를 반드시 빼앗아 갈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국진의 여섯 번째 대화 속에서 소를 팔더라도 남의 소를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된다고 국서를 안심시키려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25. 연극 연출 방법의 효과 추리

정답 ⑤

**정답 해설** 국서는 소를 가지러 온 사슴을 향해 저항하며 '남의 소를 임자 몰래 팔어먹는 법이 어디 있담!'이라고 외치고 있으므로 사슴을 향해 비굴한 표정과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국서는 도지가 많이 밀린 상태에서 소를 뺏길 위기에 처한 가난한 소작농이므로 사슴과 국서가 무대에 함께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의상 등을 통해 국서의 궁핍하고 열악한 처지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사슴이 결국 소를 가져가지는 못했지만 달리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소를 통해 각각 자신의 꿈을 키워 왔던 말뚝이와 개똥이의 씩씩하고 절망적인 정서가 드러나도록 해야 하므로 적절하다.
- ③ 구경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약자이자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인 국서의 편일 것이므로 국서의 억울함에 동조함을 드러내기 위해 국서와 비슷한 말투로 국서의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국서 가족의 결연한 태도에 소를 가져가지 못한 사슴이 '이래서는 뒷일이 좋지 못하다'며 말하고 가는 데에서 사슴의 못마땅하고 분한 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26.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가)의 '염소'와 (나)의 '소가' 특정 인물의 운명을 상징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오답 해설

- ① '염소는 죽어서도 힘이 세다.'라는 표현과 염소가 죽은 후 염소탕을 이용해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 가는 장면 등을 통해 염소는 죽은 후에도 인물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국서와 국진과 처의 대화 장면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소를 가진 자신을 인정해 주고 부러워하는 것에 대한 국서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가)에서는 염소를 이용한 염소탕으로 가족들이 돈을 벌고, (나)에서도 소는 농사를 짓는 국서네 가족에게 꼭 필요한 대상이므로 둘 다 가족의 생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기에 적절하다.
- ⑤ (가)에서 염소는 서술자의 내면 의식 속에 지속적으로 자리 잡아 서술자가 세상을 인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며, (나)에서 국서는 소가 아들보다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둘 다 인물에게 물질적 대상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27. 갈등의 원인, 유형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단속 후 누나는 장사를 그만두기를 원하고 있고 어머니 역시 이 상황이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임을 인정하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에서, 두 사람이 장사의 존재를 두고 갈등 상황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기에 두 사람의 성격이 드러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순경은 할머니에게 염소탕 장사가 불법이라고 욕박지르고 있으며, 할머니는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을 빌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힘의 관계에 있어 순경이 할머니의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가)에서 단속에 의해 염소탕 장사를 접은 가족들은 생계가 막막해지고 이에 누나는 자신을 추행했던 남자의 도움을 받아 취업을 하게 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단속을 매개로 한 가족들과 사회의 갈등이 누나의 취업에 필연성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나)에서 '국서가 '국진'을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의 매매 문제를 둘러싼 두 사람의 가치관과 입장 차이를 보여 주는 것으로 적절하다.
- ⑤ (나)에서 사슴은 밀린 도지를 내라고 독촉하며 이를 빌미로 소작농인 국서에게서 소를 강제로 빼앗아 간다. 따라서 두 사람의 갈등은 당시 농촌 사회의 모순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8~31]

### (가) 김선우, 「신의 방」

**[해제]** 이 작품은 제주도의 전통적인 공간인 통시를 통해 생태적 순환에 대한 메시지를 드러낸 시이다. 산문적 서술을 통해 생명의 속성, 생명의 이치를 표현하며 편리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치관과 생태적 가치관을 대조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통시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순환이 지닌 가치

#### [구성]

- 1행: 인간의 배변 장소와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통시
- 2행: 신이 거주하는 장소로 여겨졌던 생명의 공간 통시

### (나) 황동규, 「풍장 1」

**[해제]** 이 작품은 풍장이라는 장례 형식을 소재로 시인이 소망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 주고 있는 시이다. 시적 화자는 자신이 죽을 경우 풍장시켜 줄 것을 부탁하고 아울러 시간의 경과에 따른 풍장의 과정을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바람이 지닌 이미지를 통해 드러나는데, 바람은 화자를 비롯한 일체의 사물을 자연의 일부로 되돌리는 생명 순환의 원리를 상징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허무를 바탕으로 둔 시인의 현실 인식과 초월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주제]** 존재의 소멸을 통한 자연과의 합일

#### [구성]

- 1연: 풍장의 준비
- 2연: 풍장의 과정
- 3연: 풍장의 의미

## 28.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가)는 '살았다지요', '즐거워했다는군요', '마련했지요' 등 해오체의 종결 형식, (나)는 '풍장시켜다오', '실어 다오', '해 다오' 등 하오체의 종결 형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각각 주제 의식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오답 해설

- ① (나)는 풍장의 과정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로 볼 수 있지만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나)는 청자에게 부탁하는 형식이긴 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백조에 가깝다. 이를 대화체와 독백체가 교차된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나)에는 '늦가을 차가운 햇빛'이라는 표현에서 계절적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지만 (가)에는 계절적 이미지가 활용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가)와 (나) 모두 영탄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 29.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렵다는 것은 '산 것들의 온기', 즉 생명의 기운을 담은 똥이 그렇게 취급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돼지를 향한 외부인들의 시각을 표현한 시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거처'는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람에게 쓰는 단어이므로, 돼지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에서 돼지를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섬사람들과 화자의 공통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 ② '재미나다'는 표현에서 통시가 외부인들에게는 낯설고 기이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므로 통시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한때 빛나던 것들이 제 힘으로 다시 빛'난다는 것은 순환의 원리 속에서 생명력을 지녔던 것들이 '생명에게 공양되기' 위해 재탄생하는 과정, 즉 발효 과정을 생명 현상의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다.
- ⑤ 통시를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고 믿는 섬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통시를 신성하게 여기는 그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30.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어금니에 박혀 녹스는 백금 조각'은 세속에 사는 가치 있는 존재였으나 풍장이 된 화자와 함께 자연 속에서 소멸해 가는 존재를 나타낸다. 또한 화자는 풍장을 통해 존재의 완전한 소멸을 원하고 있기에 자신의 죽음을 알려 줄 대상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자신의 죽음을 가정한 후, '풍장'이라는 요구 사항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검색'은 공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가 살고 있는 현실이 구속과 억압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시간'은 화자가 살아 있는 동안의 시간을 의미하므로 '남몰래 시간을 떨어트린다는 것은 삶과의 이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순간, 즉 현실적 존재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화장이나 해탈은 죽음의 미화나 종교적 신비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1.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전세 택시'와 '통통배'는 풍장이 이루어지는 무인도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사한 기능과 의미의 소재이다. 두 소재가 각각 물질문명과 자연을 의미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나라의 높은 분'은 통치 문화를 없애고 변소로 개량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므로,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화자와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 ③ (가)의 '시멘트'는 '흙'과 대비되는 소재로 개량변소의 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화자가 거부하는 물질문명을 의미하며, (나)의 '가방', '옷', '구두', '양말' 등은 화자가 풍장 전에 벗겨 달라고 한 것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화자가 거부하는 물질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가)에서 자연으로 표상되는 비바람, 햇볕을 살 속에 아로새기는 것과 (나)에서 풍장 과정에서 이불을 여미듯 바람을 여미는 것은 모두 대상(돼지, 화자)이 자연과 하나 되는 순간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가)에서 돼지 배설물이 거름으로 발효되어 보리를 길러 내는 것과, (나)에서 바람 즉 자연에 의해 불게 익은 열매의 씨앗이 터져 나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두 자연의 순환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34] 최현, 「명월음」**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임금이 피란을 가고 국가적으로 위기에 빠진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임금의 덕과 은총으로 국운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비유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임금을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달에 비유하여 위기와 고난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밝은 시대가 도래할 것을 확신하는 화자의 믿음과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주제]** 우국 연주의 간절한 마음

**[구성]**

• 서사: 온 세상을 비추는 달에 대한 예찬

- 본사 1: 달빛에 취해 타는 거문고 소리가 하늘에 퍼짐.
- 본사 2: 구름이 물려와 달을 가려 근심함.
- 본사 3: 부채와 비로 구름을 걷어 내고 싶은 소망
- 결사: 단심을 지켜 밝은 날을 기다림.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우리도 단심을 지키어 명월 불 날 기다리노라'와 같은 부분에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지만 역설적인 표현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얼굴은 언제 나며 밝기는 누가 시켰나'에 대구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달의 밝음을 예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가뜩이나 시름 많은데 긴 밤은 어떠한가'에서 시름이 많아 의문형 표현을 통해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전반적으로 달과 구름을 의인화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매화 한 가지 계수나무 그림자인가 돌아보니 / 처량한 암향이'에서 시각적 심상과 후각적 심상을 통해 매화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은 '일편광휘에 팔방이 다 밝'다고 함으로써 달의 광명을 반사하여 세상에 전하고 있으나, ㉡은 '제 몸만 밝히고 남 비출 줄 모른다'고 하였으므로 ㉠은 달의 광명을 세상에 전하고 있지만, ㉡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보경은 달빛을 비추는 소재이며, 금작경은 그 속성을 통해 달이 만물을 비추는 것을 우회적으로 예찬하기 위한 소재이므로 이를 각각 달의 내적, 외적 속성을 드러내는 소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보경과 금작경 모두 달과의 소통이나 단절을 의미하는 소재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보경은 달, 즉 임금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드러내는 소재로 볼 수 있으나, 금작경을 달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소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보경은 달의 광명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재이긴 하나 금작경이 달의 광명을 세상과 차단시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달의 광명을 세상과 차단시키는 것은 구름에 해당한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눈이 왔나 서리 왔나'라는 것은 뒤에 이어지는 '온 세상이 백옥경이 되었는가와 연결하여 달빛이 세상을 비추어 온 세상이 맑고 하얗게 된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눈이나 서리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시련이나 고난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라에 환란이 닥쳐오는 모습을 표현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나라에 닥친 환란은 '심술긋은 뜬구름'이나 '떼구름'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달이 임금을, '구름'이 왜적을 의미하므로 구름에 달이 가려 천지가 깜깜해진 것은 <보기>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전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한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매화'를 가리켜 '처량한 암향이 나를 좇아 시름한다'고 하였으므로 매화는 화자가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자 임금을 향한 화자의 걱정이 드러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④ '이 몸은 진토니 / 쓸쓸한 이내 뜻이 생각하니 허사로다'는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에 비유하여 나라의 환란에도 활약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현재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자연의 이치에 따라 바로잡아질 것을 믿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화법과 작문]**

**35. 발표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④

**정답 해설** 발표자는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발표 중간중간 청중의 질문을 받으며 내용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① '여러분들 경제 시간에 통화 정책에 대한 수업을 들으셨지요? (대답을 듣고) 네, 그러면 어떤 때 긴축 정책을 편다고 알고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그러면 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통계 자료'라는 한 학생의 말을 듣고) 네, 맞아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학생들의 답을 듣고) 네,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잘 들어 보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뉴스에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말 들어 보셨죠? (대답을 듣고) 맞아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준 금리를 크게 올리는 것이지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36. 발표에서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자료 2]에서 2023년 1월에는 전월비가 0.8%로 이전 전월비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전년 동월비는 5.2%이다. 발표에서 미국의 경우 전년 동월비가 8%를 넘을 때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고 했으므로 전월비가 높다는 것이 자이언트 스텝이 필요한 시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발표자는 '조사 대상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궁금하시죠?'라는 말 뒤에 [자료 1]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료 1]에는 쌀, 현미, 보리쌀 등과 같은 곡물들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② 발표자는 [자료 1]을 제시하며 '각 곡물들의 지수 평균이 그냥 봐도 100을 넘을 것 같은데, 곡물류 전체의 지수가 100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쌀의 가중치가 크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쌀의 가중치가 크다는 것을 추론하는 내용으므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③ 발표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어떻게 해석할까요?'라고 말하며 전월비와 전년 동월비를 설명하고 있다. [자료 2]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으므로 ㉢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발표자는 전월비가 '마이너스(-)면 전달에 비해서는 내려간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물가 수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자료 2]에는 전월비가 마이너스(-)이지만 전년 동월비가 플러스(+)  
인 내용이 있으므로 ㉠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37. 발표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발표자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 말할 내용인 지수를 읽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의 질문을 한다. 이때 ㉠은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앞으로 말할 내용을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은 앞에서 물가가 오를 때에 기준 금리를 올리거나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청중에게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 묻은 것이다. 답이 명확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청중에게 관련 지식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은 아니다.
- ② ㉠은 청중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제시하며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질문을 건넨 것이지 화제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한 질문은 아니다.
- ④ ㉠은 청중이 답변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말이지만, ㉠은 청중의 반응을 듣고 발표를 이어가기 위한 질문이다.
- ⑤ ㉠은 청중에게 답을 듣는 질문이므로 예상 못한 답이 나올 경우 발표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은 청중의 답을 필수로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청중의 대답에 따라 발표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38. 협상 맥락 분석하기

정답 ②

**정답 해설** '학생 대표'는 교실 냉방기의 사용 온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하게 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시설 담당'은 '학생 대표'의 제안을 수용했을 때, 학생들이 걱정 냉방 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로 장시간 사용하여 ㉠과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 담당'은 '학생 대표'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오답 해설

- ① ㉠은 상대방의 제안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화이지, 새로운 대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은 상대방이 주장한 근거의 오류를 지적하는 발화이지, 자신의 제안과 상대방의 제안이 지닌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은 상대방이 주장한 근거의 오류를 지적하는 발화이지, 자신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발화가 아니다.
- ⑤ ㉠은 상대방이 주장한 근거의 오류를 지적하는 발화이지,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 상황을 인정하는 발화가 아니다.

### 39. 협상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④

**정답 해설** '학생 대표'의 세 번째 발언에서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안내하여 에너지 절약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학생 대표'가 ㉠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학생 대표'는 ㉠을 ㉡보다 먼저 주장하고 있다.

#### 오답 해설

- ① '시설 담당'의 첫 번째 발언에서 학교 측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예산 문제를 고려해 냉방기 사용 온도를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다고 하였다.
- ② '시설 담당'의 첫 번째 발언에서 교실 냉방기의 사용 온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하게 두었을 때, 학생들이 걱정 냉방 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로 냉방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에너지 과소비에 따른 예산 문제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 ③ '시설 담당' 두 번째 발언에서 ㉠의 효용성으로 무분별한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과소비 문제의 최소화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들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해 주기를 요청하며 ㉡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⑤ '학생 대표'의 첫 번째 발언에서 교실 여건에 따라 냉방 효과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설명하며 각 교실에서 냉방기 사용 온도의 설정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설정을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40.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 ①

**정답 해설** (가)의 '학생 대표'의 첫 번째 발언에서 각 교실의 상황에 따라 냉방기의 냉방 효과가 달라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에 이러한 학생들의 불편 사항을 보여 주는 실제 사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해설

- ② (가)의 '학생 대표'의 두 번째 발언에서 학교 측이 우려하는 바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회 차원에서 무분별한 냉방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냉방기 관리 도우미'를 운영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에서 '냉방기 관리 도우미'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1층 학생회실에 비치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일까지 제출하라는 지원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 ③ (가)의 '시설 담당'의 마지막 발언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들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나)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줄이기 운동'에서 교실 이동이나 학교 시 냉방기의 전원 끄기, 냉방기 이외에 교실 내 사용하지 않는 전기 기기의 전원을 끄기, 불필요한 전기 기기의 사용 최소화하기 등의 실천 방안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 ④ (가)의 '교장 선생님'의 첫 번째 발언에 협상 개최의 배경이 나타나 있다. (나)의 서두에 이러한 협상 개최의 배경을 제시하며 냉방기 사용 온도의 설정을 변경하기로 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의 '시설 담당'의 첫 번째 발언에 냉방기 사용의 자율화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과소비와 학생들의 건강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을 걱정하는 학교 측의 우려가 나타나 있다. (나)의 2문단에서 에너지 절약과 학생들의 건강을 함께 생각하는 냉방기 사용의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하며 학생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 41. 정보 전달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냉방기 사용 온도의 자율적 조절 시행',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반바지 착용 권장',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줄이기 운동', '냉방기 관리 도우미 운영' 등으로 내용을 항목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안내 내용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고 있다.

#### 오답 해설

- ① (나)는 문단 간의 연결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담화 표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 ② (나)는 대립되는 학교 측과 학생 측 각각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 ③ (나)에는 묻고 답하는 방식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나)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 42.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 ④

**정답 해설** <보기>에서 ㉠은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이 아니니 교장 선생님과 협의해서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나)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반바지 착용 권장' 항목은 (가)에서 논의된 내용이 아니므로 교장 선생님과 협의 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기>에서 ㉡는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과 다르니, 논의 내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나)의 '냉방기 관리 도우미 운영'에서 청결한 교실 환경을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고 제시한 내용은 (가)에서 논의된 내용이 아니므로 수정해야 한다.

### 43. 보고 글쓰기 맥락 분석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Ⅲ'에서 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를 마친 소감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해설

- ① 'I'에서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의미를 소개하고 이를 '기후 변화 완화'의 의미와 비교하여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② 'Ⅲ'에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 주었다고 하며 이는 학생들이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 ④ 'Ⅱ-1'에서 구체적인 조사 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제시하였고,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고려한 사항으로 학년, 성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I'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으로 '기후 변화 적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배경을 제시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44. 보고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 ②

**정답 해설** <자료>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기후 변화 완화'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기후 변화 적응'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기후 변화 적응'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여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① 'I'에 조사 내용의 구체적 항목을 결정하게 된 주요 배경은 나타나지 않으며, <자료>의 내용이 조사 내용

의 항목을 결정하는 배경의 의미를 보여 주지도 않는다.

③ <자료>에는 '기후 변화 적응'의 전략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자료>에는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수준과 실태를 보여 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자료>는 '기후 변화 완화' 정책의 실시가 필요하지만, 기후 변화를 온전히 막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후 변화 완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충격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과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기후 변화 적응'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 45. 보고 글쓰기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①

**정답 해설**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로 제시하였고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해설

②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나, 그 출처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③ 설문 조사의 결과를 연령, 성별에 따른 응답 비율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일상생활에서 기후 변화로 겪게 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주요 용어나 개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시각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

### [언어와 매체]

### 35. 형태소의 분석과 이해 정답 ③

**정답 해설** ㉠은 어간 끝 모음이 양성 모음일 경우에만 나타나고, ㉡은 어간 끝 모음이 음성 모음일 경우에만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운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하지만 ㉢은 '하-라'는 특정 형태소 뒤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형태론적 이형태이다.

#### 오답 해설

① ㉠은 앞 체언이 모음으로 끝날 경우에만 나타나고, ㉢은 앞 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경우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과 ㉢은 나타나는 환경이 서로 겹치지 않아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다.

② ㉠과 ㉡은 형태가 같고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의미를 동일하게 지니고 있으므로 이형태가 아니다. 형태가 다르고 의미가 같아야지 이형태가 될 수 있다.

④ ㉠과 ㉡은 앞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인지, 모음인지에 따라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⑤ ㉠과 ㉡은 앞말 모음이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에 따라 이형태가 나타나는 예이다.

### 36. 중세 국어 이형태에 대한 분석 정답 ⑤

**정답 해설** '우리롤'은 대명사 '우리'에 목적격 조사 '롤'

이 사용된 것이고, '이롤'은 명사 '일'에 목적격 조사 '올'이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롤'에 사용된 목적격 조사와 '이롤'에 사용된 목적격 조사의 형태는 각각 '롤'과 '올'로 형태가 다르다.

#### 오답 해설

① '부테'는 '부터'에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되었으며, '父母ㅣ'는 '父母(부모)'에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되었다. [A]에서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모음 'ㅣ'나 반모음 'ㅍ' 이외의 모음 뒤에서는 'ㅣ'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② '나롤'은 '나'에 목적격 조사 '롤'이 사용된 것이고, '호롤'은 '호'에 목적격 조사 '올'이 사용된 것이다. [A]에서 중세 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선행 체언이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롤/를', 자음으로 끝날 때에는 '올/을'의 형태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③ '마롤'은 '말'에 목적격 조사 '올'이 사용된 것이고, '눈롤'은 '눈'에 목적격 조사 '올'이 사용된 것이다. [A]에 따르면 선행 체언의 모음이 양성이나 음성이나에 의해 '올/롤'과 '올/를'이 결정된다.

④ '賈餼(가속)'에서 주격 조사는 '이'이고 '如來(여래)'에서 주격 조사는 'ㅇ'로 실현되었다. [A]에서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ㅍ' 뒤에서는 'ㅇ'의 형태로 실현되었다고 하였다.

### 37. 음운 변동의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은 '벗하다'의 'ㅅ'이 'ㄷ'으로 교체 후 'ㄷ'과 'ㅎ'이 'ㅌ'으로 축약이 일어나며, ㉡은 '부엌일'의 'ㅋ'이 'ㄱ'으로 교체 후 첨가된 'ㄴ'에 의해 'ㅇ'으로 교체된다. 'ㅅ'과 'ㅋ'은 모두 음절 종성에 놓인 자음이다.

#### 오답 해설

① ㉠은 '벗하다'가 [벗:하다]로 교체가 일어난 후, [바:타다]와 같이 축약이 일어난다. ㉡은 '부엌일'이 [부엌닐]로 교체·첨가가 일어난 후, [부엌닐]과 같이 교체가 일어난다. 따라서 ㉠과 ㉡은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가 동일하지 않다.

③ ㉢은 '부엌일'이 [부엌닐]로 교체·첨가가 일어난 후, [부엌닐]과 같이 교체가 일어나므로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은 '살살이'가 [산싸치]가 될 때, 음절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구개음화가 일어나므로 교체가 세 번 일어난다.

④ ㉠에는 'ㄴ' 첨가가 일어나지만 ㉡에는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⑤ ㉠은 축약이 일어나기에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든다. 하지만 ㉡은 '맛없어'의 '맛'의 'ㅅ'은 'ㄷ'으로 교체되고 '없어'의 'ㅁ' 중 뒤의 자음 'ㅅ'은 연음된 후 'ㅆ'으로 교체된다. 이때 음운의 개수에는 변동이 없다.

### 38. 올바른 문장의 요건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ㄴ에는 안긴문장인 '하얀 피부와 동그란 눈이 닳았다'에서 '닳았다'가 요구하는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되어 문법적으로 어색한 문장이 된 것이다.

#### 오답 해설

① ㄱ에서 '주었지'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ㄱ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③ ㄷ의 '확실한 사실은'과 호응하는 서술어는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가 되어야 한다.

④ ㄷ의 목적어인 '팝콘과 음료수'에서 '팝콘'은 '먹었다'라는 서술어를 추가하여 호응을 이루도록 수정해야 한다.

⑤ ㄹ의 부사어인 '절대로'는 부정적 의미를 지닌 서술어와 호응한다.

### 39. 문법 요소 분석 정답 ①

**정답 해설** 사건 시점이 발화 시점보다 앞서 있는 경우는 과거 시제를 의미한다. ㉠의 선어말 어미 '-겠-'은 발화 시점이 사건 시점보다 앞서 있는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 오답 해설

② ㉡는 시간 부사어인 '지금'과 서술어 '한다'에 사용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을 통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③ ㉢는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없이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④ ㉣의 관형사형 어미 '-ㄴ-'은 과거 시제를, ㉤의 관형사형 어미 '-ㄴ-'은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

⑤ ㉥는 시간 부사어인 '내일'을 통해 미래 시제를 나타내며, '흔났다'의 '-았-'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단정 및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 40.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정답 ③

**정답 해설** (나)의 '카드 3'의 통계 자료는 (가)의 2문단에서 제시한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하지만 (나)의 '카드 3'에는 이에 대한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제시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해 보는 것은 적절하다.

#### 오답 해설

① (가)는 의약품의 점자 표기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는 근거의 내용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가)에서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자 표기가 시각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통계 자료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가)에는 대비되는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다.

④ (가)와 (나)에는 시각 장애인들이 의약품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점자 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의약품에 표기된 점자 표기가 가독성이 떨어지는 실태를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기대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가)와 (나)에는 점자 표기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견해가 직접적으로 인용되지 않았다.

### 41. 매체 자료 제작의 계획 정답 ③

**정답 해설** '카드 2'에는 의약품의 이미지와 의약품이 아닌 물품(물감, 접착제, 농약)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가)에는 점자 표기가 되지 않은 의약품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점자 표기가 되지 않은 의약품의 유형을 (가)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카드 2'가 이를 시각화하여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① '카드 1'에는 점자로 정보를 식별하는 시각 장애인들은 의약품의 포장 형태만으로는 의약품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문구로 제시하고 있다.

② '카드 2'에는 이미지에 제시된 문구 중에서 '점자'와 '필수'에 시각적 표시를 하여 의약품의 점자 표기 의무화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④ (가)의 2문단에서 의약품에 표기된 점자의 가독성에 대한 실태를 통계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카드 3'에는 이 통계 자료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⑤ '카드 4'에 제시된 이미지는 시각 장애인이 의약품 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구매하는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시각 장애인들이 의약품 정보를 스스로 식별할 수 있도록 의약품에 점자 표기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 42.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 ②

**정답 해설** (나)에는 의약품 점자 표기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의약품 점자 표시 지침 준수 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장문의 발화 내용에 따르면 점자 표기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을 (나)에 추가해야 한다. '카드 A'는 의약품의 명확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약품 점자 표시 지침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카드 A'를 활용하여 의약품 점자 표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의약품의 점자 표시 지침 준수의 필요성을 (나)에 추가하여 안내하는 것은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① 의약품 점자 표기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약 회사의 협조와 실천이 요구된다. 그런데 (나)에서는 의약품의 명확한 식별을 위한 제약 회사의 협조와 실천 현황이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카드 A'는 의약품의 점자 표시에 대한 지침을 소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카드 A'를 활용하여 의약품의 명확한 식별을 위한 제약 회사의 협조와 실천 현황을 안내하는 것은 적절한 자료 활용이라 할 수 없다.
- ③ '카드 B'는 의약품 중에서 점자 표기가 되지 않은 의약품의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의약품에 표기된 점자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카드 B'는 의약품 중에서 점자 표기가 되지 않은 의약품의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이지만, 의약품에 점자 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나)에는 '카드 1'과 '카드 3'을 통해 시각 장애인들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는 실태를 언급하고 있다.

#### 43. 매체 자료의 특성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웹툰은 포스터에 비해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웹툰은 포스터와 달리 음악이나 영상 매체와 결합할 수 있다.
- ② 웹툰은 포스터와 달리 수용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③ 웹툰과 포스터 모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 ⑤ 포스터는 종이 위에 글과 그림을 인쇄하는 형식이고, 웹툰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만화의 형식이다.

#### 4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 ①

**정답 해설** 네 번째 컷에서 학교 폭력을 발견하고 이를 촬영하는 장면은 있으나, 학교 폭력을 신고하는 학생과 이를 외면하는 학생의 모습을 대비하는 장면이 표

현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해설

- ② 다섯 번째 컷에서 주인공을 중앙에 두고 천사와 악마가 말을 거는 것으로 인물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여덟 번째 컷에서 학교 폭력 신고 센터의 전화번호인 117이 나와 있는 전화기의 화면을 확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아홉 번째 컷에서 문제가 해결되어 갈등이 해소된 주인공과 친구의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경쾌한 배경 음악을 삽입하고 있다.
- ⑤ 아홉 번째 컷에서 학교 폭력 신고는 117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 45. 매체 언어의 비판적 이해

정답 ②

**정답 해설** 두 번째와 세 번째 컷은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동일한 사건을 표현한 것이다.

#### 오답 해설

- ① 첫 번째 컷에서 여러 장면들을 한 컷 안에서 분할하여 표현하였다.
- ③ 네 번째 컷에서 장면을 둘로 나누어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였다.
- ④ 여덟 번째 컷 이후에 둔 물리적 공간은 학교 폭력 신고를 한 이후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드러낸다.
- ⑤ 아홉 번째 컷 이전에 둔 물리적 공간은 인물의 처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짐작하게 만든다.

### 제 3 회

#### 정답

1	③	2	①	3	③	4	④	5	④
6	②	7	⑤	8	②	9	③	10	①
11	②	12	①	13	④	14	②	15	⑤
16	①	17	④	18	①	19	①	20	③
21	③	22	②	23	④	24	②	25	③
26	④	27	⑤	28	⑤	29	①	30	③
31	③	32	③	33	⑤	34	②		

#### [화법과 작문]

35	②	36	①	37	③	38	②	39	⑤
40	①	41	③	42	③	43	④	44	①
45	④								

#### [언어와 매체]

35	①	36	②	37	⑤	38	④	39	④
40	④	41	①	42	①	43	①	44	③
45	⑤								

#### 해설

#### [1~3] 스키마와 독서

**[해제]** 이 글은 스키마의 개념과 스키마를 활용한 독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키마는 경험을 통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의 구조를 의미한다. 이 중 내용 스키마는 글의 내용과 관련해 독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미하고, 형식 스키마는 저자가 이야기를 제시하는 방식이나 구조에 대해 독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스키마는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적인 지식이며, 한 요인을 떠올리면 관련된 정보 전체가 활성화된다. 또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공유하고 있는 스키마가 상대적으로 많다. 스키마를 활용하면 글의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독서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또한 스키마를 활용한 추론은 글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효율적인 독서를 위해 정보 탐색 순서를 스키마가 제공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스키마는 독서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지식 구조를 만들기도 한다. 독서에서 스키마를 활용한 독서 전략을 사용한다면 원활한 독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주제]** 스키마의 개념과 특징 및 독서에서의 기능

**[구성]**

- 1문단: 스키마의 개념과 구분
- 2문단: 스키마의 특성
- 3문단: 독서에서 스키마의 기능
- 4문단: 독서에서 스키마 활용의 이점

####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2문단에서 스키마는 정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어느 한 요인을 떠올리면 관련된 정보 전체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1문단에서 스키마는 여러 경험을 통해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의 구조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2문단에서 스키마는 여러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1문단에서 형식 스키마가 잘 형성된 독자는 구조가 잘 조직된 글을 능숙하게 읽을 수 있으며, 구조가 엉성한 글을 읽을 때는 형식 스키마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2문단에서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유사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스키마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구체적인 사례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학생 A는 소설이 일반적으로 갈등 관계에 따라 전개된다는 형식 스키마를 활용하여 독서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소설이라는 특정 종류의 글에서 저자가 이야기를 제시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② 학생 B는 대부분의 소설이 전개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다가 결말에 갈등이 해소된다는 형식 스키마를 활용하여, 노인이 거대한 물고기를 잡은 부분을 읽었을 때 이 물고기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하여 심화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 ③ 학생 B는 매년 여름 바다로 가족 여행을 갔던 개인적인 경험으로 형성된 내용 스키마를 활용하여 주인공이 바다로 여행을 떠나는 내용일 것이라는 예측을 독서 과정에서 하고 있다.
- ④ 학생 A는 어린 시절 바다 근처에서 살 때 할아버지께서 바다에 조업을 하러 가시는 모습을 자주 본 기억으로 형성된 내용 스키마에 따라 작품 내용을 예측하고 있고, 학생 B 또한 매년 여름 바다로 가족 여행을 갔던 기억으로 형성된 내용 스키마를 활용하여 작품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 ⑤ 학생 A와 학생 B의 독서 활동을 살펴볼 때 내용 스키마와 형식 스키마가 서로 상반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으며, 학생 A와 학생 B 모두 내용 스키마와 형식 스키마 모두를 독서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 3.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3문단에서 스키마는 수많은 정보 중 독서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스키마가 글에 제시된 많은 정보를 빠짐없이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해설

- ① 3문단에서 스키마가 글의 정보와 관련이 있을 때 독서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3문단에서 스키마는 독서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리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3문단에서 스키마를 활용한 추론을 통해 글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3문단에서 스키마는 많은 정보 중 독서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스키마는 글에 제시된 정보 중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한다.

#### [4~7]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

**[해제]** 이 글은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의 핵심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정신 분석학은 심적 결정론과 무의식적 정신 활동이 의식적 정신 활동보다 유의미하다는 두 가설이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프로이트 또한 정신 활동 중 많은 부분이 무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프로이트의 지형학적 모형은 정신의 영역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눈 것이며, 구조 모형은 원초아, 자아, 초자아라는 서로 상호 작용하는 세 가지의 구조로 정신의 영역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 구조는 균형을 이루는데, 원초아의 충동이나 초자아의 경직성 등이 자아를 방해하여 합리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자아는 불안을 느낄 수 있으며, 인간은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주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모형의 특징

#### [구성]

- 1문단: 정신 분석학의 특징과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모형
- 2문단: 프로이트의 지형학적 모형과 구조 모형
- 3문단: 구조 모형의 세 가지 구조의 특징
- 4문단: 불안과 방어 기제

#### 4.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3문단에서 자아는 원초아의 욕구를 외부 세계의 제약을 고려하면서 충족시키려 노력하는 합리적이고 현실 지향적인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즉 자아는 원초아의 욕구가 외부 세계에서 충족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 오답 해설

- ① 1문단에서 심적 결정론은 모든 정신 활동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원인이 있다고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심적 결정론은 정신 활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상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3문단에서 원초아는 무조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 원칙을 따르므로 자신과 타인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2문단에서 전의식은 바로 그 순간에 의식되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혹은 최소한의 노력을 통하여 자각할 수 있는 경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1문단에서 인간의 정신 활동이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상관없이 무의식적 정신 활동이 의식적 정신 활동보다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며 유의미하다는 가설과 심적 결정론이 정신 분석학의 중추를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2문단에서 원초아는 무의식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아와 초자아는 의식과 전의식 및 무의식의 영역 모두에 걸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은 ㉡에서 다른 정신의 영역을 벗어난 새로운 정신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2문단에서 지형학적 모형은 정신의 영역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눈 것으로, 의식이란 어떤 특정 순간에 자각이 되는 감각과 경험이며, 전의식은 바로 그 순간에 의식되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혹은 최소한의 노력을 통하여 자각할 수 있는 경험이고, 무의식은 자각할 수 없는 정신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형학적 모형은 자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자각이 되는지에 따라 정신의 영역을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이다.

② 2문단에서 구조 모형은 정신의 영역이 상호 작용하는 원초아, 자아, 초자아라는 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자아와 초자아는 의식과 전의식 및 무의식의 영역 모두에 걸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지형학적 모형과 구조 모형 모두 인간의 정신 중 자각이 되지 않는 영역인 무의식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②

**정답 해설** 1문단에서 프로이트는 정신 활동 중 많은 부분이 무의식과 관련이 있으며, 비연속적이며 인과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행동도 무의식적 원인이 밝혀지면 인과적 연속성이 드러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보기>의 갑의 행동은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연속성이 있는 특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갑의 무의식에 남아 있던 유아 시절 경험이 현재의 행동에 반영된 것으로, 무의식적 원인으로 인해 인과적 연속성이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초자아는 사회의 규범과 윤리 체계가 내면화된 것으로, <보기>의 사례는 어릴 때 부모의 의도로 인해 초자아가 형성된 사례가 아니다.

③ 억압은 용납될 수 없는 충동과 나쁜 기억을 의식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다. <보기>의 사례는 방어 기제 중 억압을 사용한 사례가 아니다.

④ 갑이 오페라 곡을 흥얼거리는 것이 자아의 작용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며, 3문단에서 자아는 외적 현실을 고려하는 특징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전의식은 자발적으로 혹은 최소한의 노력을 통하여 자각할 수 있는 경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갑은 자신도 모르게 오페라 곡을 흥얼거렸으므로, 이는 전의식을 통해 행동한 것이 아니다.

## 7.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⑤

**정답 해설** 승화는 충동의 표현을 인위적으로 억제하지 않고, 충동의 목표와 대상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강한 공격적 충동을 지닌 사람이 노력을 통해 타인의 앞에서 충동을 참는 것은 인위적으로 충동의 표현을 억제하는 것이므로 승화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투사는 개인이 용납할 수 없는 사고, 감정, 행동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찾는 것을 말한다. 폭력성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폭력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화나게 하여 싸우게 되었다고 하는 경우는 투사라고 할 수 있다.

② 전위는 본능적 충동을 위협적인 대상에서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로 방향을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비난을 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온 후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는 전위라고 할 수 있다.

③ 합리화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그럴듯한 이유나 변명을 통해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여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이다. 혼란을 게을리하여 경기 성적이 좋지 않은 운동선수가 자신의 좋지 않은 성적을 장비 탓으로 돌리는 것

은 그럴듯한 이유나 변명을 통해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④ 반동 형성은 금지된 욕구나 충동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불안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반대의 사고나 행동을 표출하는 것이다. 회사에서 싫어하는 동료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며 친한 척을 하는 경우는 반동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8~13]

### (가) 배출권 거래제의 개념과 원리

**[해제]** 이 글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개념과 적용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탄소 가격제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이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정부에게 배출권을 할당받고, 자신이 배출한 온실가스 양만큼의 배출권을 정부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을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도 있다. 정부가 발행하는 배출권의 수량을 줄이면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며, 정부가 발행하는 배출권의 수량을 늘리면 배출권의 가격이 하락한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조정되면서 감축 비용이 낮은 기업부터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게 되고, 결국 가장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다.

**[주제]**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 원리와 의의

**[구성]**

- 1문단: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탄소 가격제
- 2문단: 배출권 거래제의 특징
- 3문단: 시장을 통해 거래 가능한 배출권
- 4문단: 정부의 배출권 발행량에 따른 결과
- 5문단: 배출권 거래제의 의의

### (나) 배출권 거래제의 할당 방식

**[해제]** 이 글은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정부가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중 유상 할당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그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부합한다. 유상 할당을 실시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무상 할당은 업체에게 배출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므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상 할당의 기준으로는 배출량 기준 할당 방식과 배출 효율 기준 할당 방식이 있다. 배출량 기준 할당 방식은 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이며, 배출 효율 기준 할당 방식은 기업의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상 할당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무상 할당은 점차 비중을 줄여 나가고 있다.

**[주제]** 배출권 거래제의 할당 방식 비교

**[구성]**

- 1문단: 유상 할당과 무상 할당의 개념
- 2문단: 무상 할당 방식 중 배출량 기준 할당의 특징
- 3문단: 무상 할당 방식 중 배출 효율 기준 할당의 특징
- 4문단: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 할당 방식

## 8. 중심 내용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가)는 배출권 거래제를 설명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나)는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인 유상 할당과 무상 할당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배출권 거래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나)는 무상 할당의 문제점은 제시되어 있지만 배출권 거래제 자체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는 탄소 가격제의 여러 종류를 언급하지 않고 배출권 거래제만 언급하고 있으며, (나)는 탄소 가격제 중 배출권 거래제의 방식인 유상 할당과 무상 할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가)는 배출권 거래제의 개념과 방식을 설명하고 있으나, (나)는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 역사적, 경제적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인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고, (나)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 중 하나인 배출권 거래제의 방식인 유상 할당과 무상 할당의 장점이 제시되어 있다.

## 9.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가)의 2문단에서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정부는 대상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정하고, 그 양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요구가 있을 시에 정부가 배출권을 추가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5문단에서 경기가 나빠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거나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서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면 배출권 수요가 감소하여 배출권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1문단에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시장의 가격 기구에 반영되지 못해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지 못하는 것을 시장 실패라고 하며, 탄소 가격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자가 비용을 지불하게 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2문단에서 배출권을 기업이 구매해야 한다면 기업에 경제적 부담이 생기므로, 생산 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물품의 생산 비용과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4문단에서 배출권 가격이 높아질수록 감축 비용이 많이 드는 감축 방법까지도 경제성이 생기므로 더 많은 기업이 배출권을 구매하는 대신 온실가스를 자체적으로 감축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10.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우리나라는 환경을 오염시킨 주체가 복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상 할당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부합한다. 무상 할당 중 특히 배출량 기준 할당을 하게 되면, 과거에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한 기업일수록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게 되어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유상 할당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답 해설**

- ② 유상 할당을 실시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수출 기업의 경우 수출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
- ③ 유상 할당을 실시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 감축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무상 할당 중 배출 효율 기준 할당 방식 역시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설비에 투자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므로 기업이 감축 기술에 투자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유인이 생긴다.
- ④ 유상 할당과 무상 할당 모두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 ⑤ 유상 할당을 실시하면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이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상 할당 중 배출 효율 기준 할당 방식 역시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이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여 감축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11. 세부 내용 추론**

정답 ②

**정답 해설** B가 감축 기술을 이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비용은 톤당 4만 원이고,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배출권 또한 톤당 4만 원이다. 즉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보다 B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배출권을 구입하려면 A가 아닌 C와 협상을 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A는 온실가스를 자체적으로 감축하는 비용(톤당 5만 원)보다 배출권을 구매하는 비용(톤당 4만 원)이 저렴하므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온실가스를 자체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하려고 할 것이다.
- ③ C는 정부에게서 받은 배출권을 모두 판매하는 것이 이익이므로, 정부에게서 받은 배출권 전부를 판매하고 자신이 배출하는 모든 온실가스를 감축 기술을 통해 자체적으로 감축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C가 배출권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120만 원(30톤×4만 원)으로 C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비용인 120만 원(40톤×3만 원)과 동일할 것이다.
- ④ C가 온실가스를 자체적으로 감축하는 비용(톤당 3만 원)은 시장의 배출권 가격(톤당 4만 원)보다 저렴하다. 그러므로 C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모두 자체적으로 감축하려 할 것이고, 정부에게 받은 배출권 전부를 시장에 팔려고 할 것이다.
- ⑤ A, B, C가 각각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자체적으로 감축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총합은 240만 원(A=30톤×5만 원=150만 원, B=15톤×4만 원=60만 원, C=10톤×3만 원=30만 원)이다. <보기>와 같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따라 행동한다면, A는 배출권을 초과하는 온실가스 30톤을 자체적으로 감축하지 않고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배출하려고 할 것이므로, 120만 원(30톤×4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B는 배출권을 초과하는 15톤의 온실가스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든 배출권을 구매하여 배출하든,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60만 원(15톤×4만 원)으로 동일하다. C는 정부에게서 받은 모든 배출권을 판매하여 120만 원(30톤×4만 원)의 이익을 얻을 것이고, 배출하는 모든 온실가스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120만 원(40톤×3만 원)의 비용이 들 것이므로, 결국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다. 즉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 후 A, B, C가 부담하는 비용의 총합은 180만 원이다.

**12.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ㄱ. 노력이 아닌 우연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예상치 못한 이익을 우발 이익이라 한다. 갑작스러운 생산 원료 공급난으로 인해 갑국의 기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제품의 생산이 감소하였다. 즉 갑국의 기업은 노력이 아닌 우연적 상황으로 인해 잉여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으므로 우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ㄴ.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의 감축이 다른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상쇄되는 것을 탄소 누출이라고 한다. 을국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여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지 않는 병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였으므로 탄소 누출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ㄷ. 병국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면 병국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철강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므로, 을국의 기업이 생산하는 철강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ㄸ. 을국이 배출권 거래제를 폐지하는 것과 전 세계적인 철강 제품의 생산이 감소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

**13.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과 ㉡는 '권리나 결과·재산 따위를 차지하거나 획득하다.'의 의미이다.

**오답 해설**

- ① '돈을 빌리다.'의 의미이다.
- ② '집이나 방 따위를 빌리다.'의 의미이다.
- ③ '구하거나 찾아서 가지다.'의 의미이다.
- ⑤ '긍정적인 태도·반응·상태 따위를 가지거나 누리게 되다.'의 의미이다.

**[14~17] 리튬 이온 전지의 원리와 전고체 전지의 특성**

**[해제]** 이 글은 리튬 이온 전지의 원리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리튬 이온 전지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고체 전지의 특성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리튬 이온 전지는 양극, 음극, 유기 액체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튬 이온 전지는 전지 내의 리튬 이온이 유기 액체 전해질을 통해 양극과 음극을 오가면서 전기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저장 및 방출하게 된다. 하지만 유기 액체 전해질은 휘발성 및 인화성이 높아 온도 변화나 외부 충격 등의 환경 변화에 취약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유기 액체 전해질 내에서 양극과 음극의 물리적 접촉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별도의 분리막이 추가로 필요하여 리튬 이온 전지의 집적성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한 전고체 전지가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고체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에 비해 이온 전도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주제]** 리튬 이온 전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고체 전해질의 개발

**[구성]**

- 1문단: 리튬 이온 전지의 개념과 특성
- 2문단: 유기 액체 전해질의 문제점
- 3문단: 전고체 전지의 장점
- 4문단: 고체 전해질의 한계

**14.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4문단에 따르면 전해질의 기능은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이다. 즉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 두 전극 사이를 원활하게 이동하게 하는 것이 전해질의 기능인 것이다. 그리고 1문단에서 리튬 이온 전지는 충전 시 양극에서 리튬 이온이 탈리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리튬 이온은 전해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양극 및 음극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3문단에서 전고체 전지는 전지의 모든 구성 요소가 고체라고 하였다.
- ③ 4문단에서 고체의 결정 결함은 이온의 이동을 제한하므로 전지의 내부 저항을 높게 되고, 이는 전지의 출력을 낮추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 ④ 2문단에서 리튬 이온 전지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전해질은 휘발성 및 인화성이 높은 유기 용매 기반의 액체 전해질이라고 하였다.
- ⑤ 1문단에서 리튬 이온 전지는 리튬 이온이 유기 액체 전해질을 통해 양극과 음극을 오가면서 전기 화학적 반응에 의해 전기 에너지를 저장 및 방출하는 에너지 소자라고 하였다.

**15. 숨겨진 전제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2문단에서 양극과 음극의 물리적 접촉을 통해 양극과 음극 사이에 유발되는 직접적인 전자의 교환은 급격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리튬 이온 전지의 화재 및 폭발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액체 전해질 내에서는 분리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였는데, 분리막은 리튬 이온 전지의 양극과 음극이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없게 해 주는 장치이다. 이로 볼 때, 리튬 이온 전지의 폭발을 예방하려면 양극과 음극의 물리적 접촉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4문단에 따르면 전해질은 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통로이다.
- ② 양이온과 음이온이 모두 확산하는 것은 양극과 음극 사이의 직접적인 전자의 교환을 유발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 ③ 유기 용매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가 좋으면 전기 화학적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양극과 음극 사이의 직접적인 전자 교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유기 용매 전해질의 휘발성과 인화성이 높으면 외부 충격에 취약하여 안정성이 떨어진다.

**16. 중심 내용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2문단에서 ㉠은 온도 변화나 외부 충격 등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고 하였다. 4문단에서 ㉡은 ㉠에 비해 이온 전도도가 현저히 낮다고 하였다. 또한 이온 전도도가 높으면 전해질 내에서 리튬 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은 ㉡에 비해 리튬 이온 이동의 제약이 작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2문단에서 ㉠은 온도 변화나 외부 충격 등 환경 변화에 취약하며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3문단에서 ㉡은 ㉠의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된 것으로 분리막과 같은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 ③ ㉢에 존재하는 고체 결정의 결합은 리튬 이온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하였다. 3문단에서 ㉢은 ㉠의 문제점인 취약한 안전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④ 3문단에서 ㉣은 기존 리튬 이온 전지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⑤ 3문단에서 리튬 이온 전지의 전해질을 ㉠에서 ㉢으로 대체함으로써 제조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고, 내부 공간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17. 구체적 사례에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1문단에 따르면 양극의 리튬 이온이 전해질을 거쳐 음극에 삽입될 때는 리튬 이온 전지가 충전될 경우이며, 이때 전자는 전해액이 아니라 외부 도선을 따라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게 된다.

**오답 해설**

- ① ㉠은 양극에서 음극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1문단에서 리튬 이온 전지가 충전될 때에는 전류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지만, 방전 시에는 충전할 때와 반대로 이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 ② <보기>의 리튬 이온 전지로 전기 기기를 구동한다는 것은 리튬 이온 전지의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방전한다는 것이다. 1문단에서 리튬 이온 전지가 충전될 때에는 전자가 외부 도선을 따라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게 된다고 하였다. 방전 시에는 충전할 때와 반대로 전자가 이동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 방향으로 이동한다.
- ③ 1문단에서 리튬 이온 전지는 충전 시 양극에서 리튬 이온이 탈리된다고 하였다.
- ⑤ 2문단에서 리튬 이온 전지 내의 전해액에서는 미세한 다공질 재료로 제작된 분리막을 통해 리튬 이온만 선택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18~21] 김정환, 「사하촌」**

**[해제]** 이 작품은 사찰 소유의 전답을 얻어 살아가는 사하촌의 소작 농민들의 빈궁과 삶의 고통을 그려 낸 소설이다. 이 소설의 무대가 되고 있는 사하촌의 농민들은 절대적인 지주로 군림하고 있는 사찰의 횡포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이들에게는 세가지의 고통이 늘 함께한다. 하나는 사찰 본래의 권능과 지위를 잃고 오히려 권력과 결탁하여 농민들을 착취하는 타락한 절과 승려들의 행태이고, 둘째는 일체의 억압과 강압적인 수탈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명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가뭄이라는 자연 재난이다.

이 세 가지 시련 가운데 자연 재난인 가뭄은 농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에 의해 극복된다. 그리고 일체의 억압과 착취에 대해서도 농민들은 이를 악물고 견딘다. 이들에게 가장 혹독한 것은 동족의 입장이면서도 일체의 권력에 빌붙어 농민을 착취하는 사찰의 폭거이다. 결말부에서 입도 차압의 횡포를 부리는 사찰에 대응하여 농민들이 집단적인 항거를 일으킬 것임을 암시하는데, 이러한 항거는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저항으로 볼 수 있다.

**[주제]** 모순된 농촌 현실에서 수탈로 고통당하는 농민들의 모습과 현실 극복 의지

**[전체 줄거리]**

극심한 가뭄으로 논에 물을 대지 못하자 성동리 주민들은 어떻게든 물을 대기 위해 노력하고, 고서방은 물을 넉넉히 끌어 쓴 보광리 주민과 마찰을 빚다가 결국 주재소에 끌려간다. 가뭄이 지속되자 보광사에서는 기우제를 지내는데, 성동리 주민들은 빗 값을 돈을 시주로 보태기도 하지만 여전히 비가 올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보광사 간평 위원들은 흉작이 들었음에도 성동리 주민들의 눈에 높은 소작료를 매기고, 조합 이사는 밀린 대금의 지불 기한을 연기해 달라는 주민의 청을 무시한다. 이윽고 벼를 압류당하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주민들은 압류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탄원하기 위해 보광사로 향한다.

**18.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들깨', '노승', '과부 할멈', '이시봉' 등 대립하는 인물들의 행동을 묘사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이야기 내에서 서술자의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다.
- ③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 위치하고 있으나,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다.
- ④, ⑤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 위치하여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19. 인물의 성격 이해**

정답 ①

**정답 해설** 진수는 치삼 노인이 간평원들에게 노여움을 살까 염려하여 무사하게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고 있으므로, 치삼 노인을 못마땅해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② 들깨는 '여보, 이게 무슨 짓이오. 밑엿사람은 굶어 죽어도 좋단 말이오?'라고 말하며 노승에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고서방은 지난여름 이시봉에게 받은 치욕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지만 이를 길로 드러내지 않는다.
- ④ T시 수도 출장소에서 저수지의 물을 터놓음으로써 물을 차지하기 위한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
- ⑤ 자신의 눈에 물을 대기 위해 악을 쓰는 과부 할멈에게 이시봉은 행패를 부려 물을 대지 못하게 한다.

**20.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은 '간평'이고, ㉡는 '술상'이다. 간평인들이 술상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고 소작인들은 '제에게, 간평을 나온 쟁가, 술을 먹으러 나온 쟁가? 아무 작정을 모르겠군.', '논을랑 둘러보지도 않고 앉아서만 소작료를 정할 것 아닌가?'와 같이 간평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간평으로 인한 간평인들과 소작농 간의 대립은 술상 앞에서 심화된다.
- ② 술상은 앞으로 진행될 간평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 간평인들을 대접하려고 마련한 자리이다.
- ④ ㉡에 참석한 인물들은 간평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과 진수이다. ㉠의 부당함이나 소작인들의 불만은 소

작인들의 대화에서는 드러나고 있지만 ㉡에 참석한 인물들 간의 대화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술상은 간평이라는 행위가 사회적 모순에 의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알려 주는 소재이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과부 할멈의 허벅지에 생긴 '시퍼런 멍울'은 중간 계층의 횡포로 인한 농민들의 수난을 상징한다.

**오답 해설**

- ① 절의 눈에서 소작하기 때문에 들깨가 노승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은 지주의 땅을 빌려 쓰는 소작농의 처지로 볼 수 있다.
- ② 농민들이 이시봉을 비하하는 말로 부르는 것은 권력 계층에 빌붙는 중간 계층을 향한 적대 의식으로 볼 수 있다.
- ④ 시봉이 자기 집 농사 사정을 여쭙려는 치삼 노인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지주를 대리하는 중간 계층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 ⑤ 사정을 설명하는 치삼 노인에게 핀잔을 주는 간평원의 모습은 농민들을 향한 중간 계층의 횡포로 볼 수 있다.

**[22~27]**

**(가) 윤선도, 「견회요」**

**[해제]** 이 작품은 조선 광해군 때에 고산 윤선도가 지은 5수의 연시조이다. 작가가 이이첨을 비롯한 권신들의 죄를 규탄하는 병진소(丙辰疏)를 올렸으나 반대 세력의 모함으로 오히려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작품이다. 타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옳게 여기는 신념을 지키려는 작가의 모습과 패기가 선명히 나타나 있으며, 임금을 향한 충절과 아버이를 생각하는 효성을 유학자로서의 의연한 태도와 목소리로 노래했다.

**[주제]** 아버이를 향한 효심과 임금에 대한 충심

**[구성]**

- 제1수: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
- 제2수: 자신에 대한 자조와 임금의 올바른 판단 호소
- 제3수: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심
- 제4수: 아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
- 제5수: 임금에 대한 충심

**(나) 안조환, 「만언사」**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시대 정조 무렵에 대전별감이라는 벼슬살이를 하다가 횡령 사건을 일으켜 추자도로 유배를 간 작가의 실제 경험을 담은 장편의 가사이다. 유배지로 출발하는 시점부터 유배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귀환하는 과정까지 겪은 경험과 이에 대한 소회를 다양한 수사를 섞어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수록 부분에서는 유배에서의 고통스러운 삶과 지난날 헛된 욕심을 부린 것에 대한 후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주제]** 유배지에서 겪는 고통과 지난날에 대한 후회

**[구성]**

- 1~5행: 제대로 된 의복이 없는 자신의 처지
- 6~13행: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 14~22행: 건강한 농민의 삶과 대비되는 자신의 삶
- 23~26행: 현재의 처지가 될 줄 몰랐던 자신의 과거

**(다) 이양하, 「신록 예찬」**

**[해제]** 이 작품은 봄을 맞아 신록이 우거진 계절에 자연을 즐기면서 인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수필이다. 출발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라고 명명된 그 루터기에 앉아 자연에 몰입하는 글쓴이는 사람을 떠나와 조용한 자리에서 자연을 즐기는 자신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뒤, 그럼에도 신록의 계절을 맞을 이때는 자연의 노래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자연과 대비된 인간의 욕망과 비루함을 떠올리며 자연의 순수함을 닮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신록의 아름다움 예찬과 인간의 욕망 비판

**[구성]**

- 1문단: 사람들과 떨어져 숲속에서 여유를 즐김.
- 2문단: '나는 보통 사람일 뿐 선물이 있는 것은 아님.'
- 3문단: 자연의 기쁨의 노래가 퍼져 나오는 것 같은 신록의 모습
- 4문단: 대자연의 거룩함을 보면서 인간의 일이 얼마나 사소한지를 생각함.

**2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가)에서는 '분별할 줄 이시랴', '내라 하여 모를쓴가'에서 설의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도 '담화봉접이 그물에 걸렸으랴', '높은 나무에 올랐으랴'에서 설의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에서는 '어와 내 일이야'와 같이 감탄사를 사용한 부분이 있지만, (가)에서는 감탄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 ③ (가)에서는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와 같은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한 표현이 나타나 있다. 그렇지만 (다)에서는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 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를 통해 자연을 예찬하면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을 자신과는 다른 존재로 보는 것이므로 자신과 자연물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다)에서는 '푸른'과 같은 색채어가 사용되었지만, (가)에서는 색채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⑤ (나)에서는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 말하니 살았으나 모양은 귀신일다'와 같이 자문자답하면서 내용을 전개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다)에는 자문자답하는 내용이 없다.

**2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제4수>에서 '물은 멀고 멀고'는 아버지가 계신 곳과 화자가 있는 곳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말로 아버지 그린 뜻이 많다는 것과 대응이 된다. 그렇지만 '울고 울고'는 아버지를 그리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지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제1수>에서 화자는 외부에서 '올다 하나 외다 하나'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할 뿐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외부의 말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제1수>에서 화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밧기 여남은 일'과 같은 일들은 분별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따라서 '그 밧기 여남은 일'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제2수>에서 화자는 임금에게 남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임이 혜여 보소서'라고 말한다. 남들이 자신을 비난하지만 자신은 임금을 위해 충언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진정성을 말하는 것이다.
- ⑤ <제5수>에서 화자는 아버지를 그리며 마음이 임금을 그리며 마음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충과 효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다.

**2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가)의 '되'는 부모님과 자신 사이에 놓인 장애물을 뜻한다. (나)의 '되'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부정을 저질렀던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가)의 '되'가 자연에 대한 예찬을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내 일'은 화자가 평가하기에 망령된 일로 귀양을 오게 된 이유와 관련이 있다. <보기>를 통해 그 이유가 간신들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린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나)의 '내 일'은 개인적 비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와는 성격이 다르다.
- ③ (가)의 '아무'는 임금에게 화자를 포함한 사람들을 말한다. (나)의 '담화봉접'은 꽃을 찾는 벌과 나비라는 뜻으로 이익에 눈이 멀어 죄를 저지르게 된 화자 자신을 말한다.
- ④ (나)의 '남방염천'은 겨울밖에 없는, 화자에게 고통스러운 환경을 말한다. 이와 달리 (가)의 '하늘'은 인간 세상의 원리를 만들어 낸 근원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 ⑤ (나)의 '눈물'과 '한숨'에 담긴 감정은 문백과 <보기>를 고려하면 현재의 고통과 후회라고 할 수 있다. (가)의 '울고'에 나타난 감정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다.

**25. 작중 상황의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B]에서 화자는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다. 그런 삶을 진작에 알았다면 자신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평소 꿈꿔 왔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옥식진찬 어데 가고 맥반염장 대하오며 / 금의화식 어데 가고 현순백결 하였고'를 통해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처지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 ②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 말하니 살았으나 모양은 귀신일다'를 통해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농부들이 타작해서 밥과 술을 해서 배부르게 먹고

만족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화자는 부러워하고 있다. ⑤ '범 물릴 줄 알았으면 깊은 피에 들어가며 /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나무에 올랐으랴'를 통해 화자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죄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26. 서술자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글쓴이는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에 결눈을 팔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를 즐기 위해서 '친한 동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글쓴이가 찾아가는 '나의 자리'는 혼자 앉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공간이다.
- ② 글쓴이는 '군속을 떠나 고고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선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무리를 떠나서 사색을 즐기는 일을 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자신도 감담을녀의 한 사람으로 남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대자연의 거룩함을 느끼기 위해 잠시나마 '오욕 칠정'에 사로잡힌 마음, 즉 '사람의 일'을 잊고자 한다.

**27. 작품 간 비교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은 '백운'과 대조되는 것으로, 공명을 탐하는 마음에 대응된다. ㉡은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나, 또는 오욕 칠정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데 마음의 영일을 갖지 못하는' 것을 이른다. 그러므로 ㉠과 ㉡에는 모두 부귀와 명예를 지향하는 세속적인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

**오답 해설**

- ① ㉠은 공명을 바라는 마음이므로 현실을 초월한 삶과는 관계가 없다.
- ② ㉠으로 인해 화자가 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므로, ㉠이 자연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③ ㉠은 탐욕스러운 마음을 나타내므로 이타적인 마음과는 관련이 없다.
- ④ 글쓴이는 ㉡을 잠깐이나마 잊고 신록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한다. ㉡은 다시 돌아가야 할 인간 세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 버려야 하는 가치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28~31] 작자 미상, 「옹고집전」**

**[해제]** 이 작품은 판소리계 소설의 하나로, 현재 판소리는 전해지지 않는다. 부자이지만 인색한 인물이 탁발승을 천대하였다가 그의 도술로 벌을 받는 구성은 '장자못 설화'와 상통하고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는 구성은 '취 둔갑 설화'가 수용된 것이다. 옹고집은 조선 후기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등장한 신흥 서민 부자 계층 중 부를 추구하는 데에만 몰두하여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을 일삼는 부류를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는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인간의 참된 도리에 대한 교훈, 권선징악

[전체 줄거리]

웅진골에 살고 있는 웅고집은 성질이 고약하고 인색하며, 팔십 노모를 돌보지 않는 불효자로 승려와 거지를 무시하는 등 악행을 일삼았다. 어느 날 월출봉 학 대사가 웅고집을 찾아가지만, 웅고집은 학 대사를 문전 박대한다. 이에 학 대사는 허수아비에 부적을 붙여 가짜 웅고집(허용가)을 만든다. 이후 허용가는 진짜 웅고집(실용가)의 집에 찾아가고, 허용가와 실용가는 서로가 진짜라고 다투게 된다. 둘은 사또를 찾아가 진위를 가려 달라는 송사를 하고, 사또는 세간살이와 집안 족보를 잘 안다는 이유로 허용가를 참용가로 인정한다. 집에서 쫓겨난 실용가는 도승을 찾아가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도승이 준 부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실용가가 부적을 던지자 허용가는 허수아비로 변하고, 이에 실용가는 착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기로 한다.

28.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이렇듯 두 용가가 아옹다옹 다툼 적에', '양옹이 웅웅하니', '그놈의 호적은 웅송만송하야'와 같이 '웅'이라는 음을 반복적으로 활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 글에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인물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무지하던 고집이 놈', '이럴 즈음 허용가의 거동 보세. 송사에 이기고서 돌아올 때 의기양양하는 거동, 진소위 제법이겠다.'에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 있지만 이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③ 이 글에서 빈번한 장면 교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글에서 인물 간의 갈등 해소를 암시하는 상징적 소재는 사용되지 않았다.

29.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①

정답 해설 실용가는 자신이 용가라 우기면 곤장을 더 맞겠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용가가 아니오니,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다. 즉 실용가가 송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② 송사에서 진 실용가는 걸인 신세가 되어 '고향 산천 멀리하고 남북으로 벌어먹을새'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실용가의 아내가 집에 돌아온 허용가에게 달려와 허용가의 손을 잡고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통해 실용가의 아내가 별다른 의심 없이 허용가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허용가는 송사에 이겨 의기양양하며 실용가를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허용가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세간살이는 물론이고 '모란 그린 병풍 한 벌은 자식 신훈 시에 매화 그린 폭이 찢겨 고치고자 다락에 따로 없어 두었습니다.', '명주가 마흔 통이운데, 그중 한 필은 큰딸이 첫 몸을 보았기로 개짐을 명주 통에 끼웠더니 피가 조금 묻었사오니', '한 켄레는 이달 초사흘 밤에 쥐가 코를 갈아 먹어 신지 못하옵고'와 같이 그 재물에 얽힌 일화를 언급하였다.

30.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㉓는 사또가 자신을 진짜라고 분별해 줄 것이라는 실용가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공간이다. ㉔에서 실용가의 아내와 식솔들이 송사에 이기고 돌아온 허용가를 진짜로 생각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㉓는 실용가와 허용가의 갈등이 권위 있는 인물의 중재로 일시적으로나마 해소되는 공간이다. ㉔에서는 인물들 간의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㉓는 실용가와 허용가가 송사를 위해 가는 곳이라는 점에서 인물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찾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㉔는 허용가가 조연을 구하기 위해 찾은 공간이 아니다.
④ 허용가와 실용가가 사또에게 환심을 사고 잘 보이기 위해 ㉓를 찾은 것은 아니다. ㉔는 실용가에 대한 허용가의 분노가 나타나기보다는 가족 간의 애정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⑤ ㉓는 인물들 간의 논리적 말하기가 주를 이루는 공간이고, ㉔는 인물들 간의 관계 지향적 말하기가 주를 이루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사또는 실용가와 허용가 간 논쟁을 듣고 또 다른 청자로서 화자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는 배심원의 역할을 한다. 즉 사또는 발화 상황에서 각자의 주장을 듣고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기 때문에 2단계 소통 맥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실용가와 허용가는 작품 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두 인물이다. 따라서 이들은 1단계 소통 맥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② 김 별감은 주변 인물로 실용가와 허용가가 진짜 여부를 다툼 때 자신은 누가 진짜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관가에 가 보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2단계 소통 맥락에 해당한다.
④ 사또가 집안 족보와 세간살이를 잘 아는 허용가를 진짜라고 판결한 결과를 보고 독자들이 올바른 가정의 모습에 대한 의미를 형성했다면 3단계 소통인 최종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⑤ 실용가가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며 신세 한탄하는 발화를 보고 독자들이 실용가의 삶을 비판하고 인간의 참된 도리를 떠올렸다면, 화자의 발화를 보고 작품의 의도를 파악한 것으로 거시적 구조로서 작가와 독자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32~34]

(가) 복효근, 「느티나무로부터」

[해제] 이 작품은 상처를 새로운 삶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삶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시이다. 먼 길을 걸던 화자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쉬다가 썩은 느티나무의 몸통에서 난 몇 포기 of 풀을 보고, 고통이나 상처가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주제] 상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삶에 대한 깨달음

[구성]

- 1연: 느티나무 아래에서 상처와 치유에 대한 인

식을 전환

- 2연: 상처와 치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삶의 의지를 재확인

(나) 신경림, 「비에 대하여」

[해제] 이 작품은 역사를 대하는 인간의 낙관적인 태도를 '비'의 속성을 통해 드러내는 시이다. '비'는 생산의 주체이자 문명을 일구는 창조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때로는 자연과 인간 문명을 파괴하는 양면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의 속성에서 역사를 상기시키며, '비'를 신뢰하듯 역사도 자신의 편으로 보는 민중의 의식을 보여 준다.

[주제] 역사에 대한 민중의 신뢰

[구성]

- 1~11행: 창조와 파괴의 양면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비
• 12~17행: 비와 역사에 대한 민중의 신뢰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가)는 '느티나무'를, (나)는 '비'를 '너'라고 부르고 말을 건네며, 두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는 '나'의 이동이, (나)에서는 '비'의 이동이 드러난다. 하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지 않는다.
② (가)와 (나) 모두 동일한 시행이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의 '푸른', '피꽃', (나)의 '피'에서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대비시키고 있지 않다.

3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㉓는 '느티나무'이고, ㉔는 '나무'이다. 생명이 다하여 썩어가는 '느티나무'는 거름이 되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게 하고, '나무'는 '비'에 의해 뿌리째 뽑혀도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파괴와 탄생을 반복한다. 이는 모두 자연의 섭리에 따른 생명의 순환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느티나무'는 수명이 다한 늙은 나무로, 문명의 발전을 위해 희생당하는 존재는 아니다.
② '느티나무' 몸통 속에서 풀이 자라고 있으나, 이는 '느티나무'의 의지로 일어난 일은 아니다.
③ '나무'는 자연의 힘에 순응하는 존재로, 인간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④ '나무'는 파괴당하지만 자연의 섭리에 의해 태어나므로, 탄생을 위해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썩어 가는 느티나무의 몸통 속에서 (가)의 화자는 몇 포기의 풀을 발견한다. 이를 통해 느티나무를 안쓰럽게 여기던 화자의 태도가 새로운 생명을 잉

태해 낸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이를 경건히 받아들이는 태도로 변화하게 된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화자는 먼 길을 떠나온 자신과, 오랜 세월을 살아온 느티나무를 동일시하고 있다.
- ③ 느티나무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화자는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하며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 ④ (나)에서는 인간들이 만든 마을을 파괴하는 비의 모습에서 파괴적인 속성이 드러나고 있다.
- ⑤ (나)의 마지막 행에서는 비보다 더한 양면성을 지닌 역사를 자기 편이라고 믿는 민중의 낙관적인 역사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5. 강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②

**정답 해설** 설명 대상인 핵융합 에너지와 관련하여 강연자의 이력을 제시한 부분은 없다.

**오답 해설**

- ① 2문단에서 상반된 원리를 가진 핵융합과 핵분열의 개념을 비교하여 강연의 설명 대상인 핵융합 에너지의 특징을 전달하고 있다.
- ③ 1문단에서 언급한 미래의 에너지가 가져야 하는 특징에 대해서 6, 7문단에서 다시 언급하여 핵융합 에너지가 미래의 에너지로 적합하다는 강연의 핵심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2문단에서 청중이 낯설게 느낄 만한 어려운 개념인 중수소를 청중이 쉽게 알 수 있는 바닷물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 ⑤ 4문단 앞부분에서 강연에서 언급한 전문적인 단어인 플라스마의 의미를 이어서 추가로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36. 강연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①

**정답 해설** 5문단에서 토카막 장치가 자기장을 이용해 플라스마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핵융합 장치의 조건인 초고온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② 7문단에서 핵융합 에너지는 풍력 에너지나 태양열 에너지와 달리 고효율로 대용량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2문단에서 핵융합 에너지와 핵분열 에너지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④ 7문단에서 핵융합 에너지는 사고 시에도 플라스마 발생 장치만 끄면 언제든지 바로 중단할 수 있어 원자력 발전처럼 심각한 사고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 ⑤ 7문단에서 핵융합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와 달리 고갈 걱정이 없어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분쟁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7. 강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4문단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태양

중심부는 1,500만 도 정도이며, 태양과 환경이 다른 지구에서 핵융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1억 도 이상의 온도의 플라스마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2문단에서 핵융합은 수소와 같은 가벼운 원자핵들이 반발력을 이기고 무거운 원자핵으로 융합하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3문단에서 핵융합의 핵심 원료인 중수소는 바닷물을 전기 분해하여 얻을 수 있고, 삼중 수소는 핵융합로에서 중성자를 리튬과 반응시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5문단에서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라스마를 담고 있으면서도 초고온을 견딜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7문단에서 핵융합 에너지는 풍력 에너지나 태양열 에너지와 달리 고효율로 대용량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화석 에너지와 달리 고갈 걱정이 없어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분쟁도 없을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나 환경 오염 물질 발생이 적고, 사고 시에도 플라스마 발생 장치만 끄면 언제든지 바로 중단할 수 있어 원자력 발전처럼 심각한 사고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8. 대화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②

**정답 해설** (가)에서 '학생 3'이 학년별로 인터뷰한 자료가 없다고 하자 '학생 2'는 한 학년씩 맡아서 인터뷰 자료를 모으자고 말하였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 1'은 설문 조사에 개선 방향에 대한 물음이 없어서 기타 의견이 나온 것이라는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며, 인터뷰를 할 때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 보자고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나)에서는 수능 후로 미루는 안에 대해 면접 조사한 결과 15명 중 14명이 찬성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 해설**

- ㄴ. 설문 조사 내용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다시 설문 조사를 한 것은 아니다.
- ㄷ. 교장 선생님과 축제 운영의 개선 방향에 대해 협의 한다는 내용은 학생들의 협의 과정에는 없으며, 기사의 내용에도 없다.

**39. 대화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B]에서 '학생 2'는 설문 조사의 결과가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자, '어떤 방법으로 조사한 거야?'라고 묻고 있다. '학생 3'이 답을 하자 '그렇구나.'라고 대답하고, 학년별 찬반 비율에 대한 정보까지 묻고 있는 것을 볼 때, '학생 2'는 설문 조사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A]에서 '학생 3'이 '사실 작년 학교 축제 프로그램에 먹거리 장터나 사행성 놀이가 많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라고 말하자 '학생 1'은 '우리 동아리도 간편한 놀이 위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지.'라고 동조하는 말을 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2'는 '내 주변 친구들은 축제 때만이라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라고 말하며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 ③ [A]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대해 '학생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하니까 동의하

는 부분도 있'다고 말한 뒤, 생각의 차이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④ [B]에서 '학생 1'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금처럼 높고 즐기는 축제에 대해 반대가 많은 경향이 있네.'라고 분석한 후 학년별로 인터뷰한 것이 있는지 추가 정보를 묻고 있다.

**40. 작문의 다양한 성격 이해**

정답 ①

**정답 해설**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에는 수집된 모든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사용한다. 기사의 초고에서는 축제의 시기를 미루는 안에 대해 면접 조사한 15명 중 한 명의 인터뷰 내용만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모두 글에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가)에서 '학생 2'는 반대 의견에 초점을 맞추어 기사 작성을 하려고 했지만 수집된 설문 조사 결과를 보고 방향을 수정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축제의 시기를 옮겨야 한다는 대안을 중심으로 기사를 구성하고 있다.
- ③ (가)에서 '학생 3'이 수집한 자료는 1학년은 11 : 19, 2학년은 18 : 12, 3학년은 22 : 9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을 (나)에서는 '축제를 경험해 본 2, 3학년에서는 반대로 찬성이 61%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라는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래 자료를 가공하여 제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일반적으로 기사를 쓸 때 자료 수집의 단계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해야 한다. '학생 2'가 학생들의 생각이 자신들이 추측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니 찬반 이유를 인터뷰해 보자고 하는 데서 이러한 기사문 쓰기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에서 설문 조사 결과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없는 불완전한 자료이기 때문에 추가로 인터뷰 자료를 모으거나 설문 조사를 하려고 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41. 비평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논란의 배경이 되는 교장 선생님이 학교 축제를 학술제로 전환하겠다는 제안을 제시하고, 축제의 시기를 옮겨서 내실화해야 한다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교장 선생님이 학교 축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학생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아니다.
- ② 설문 조사를 한 이유인 논란의 배경을 제시하지 않았다.
- ④ 논란의 배경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전체의 핵심 내용도 아니다.
- ⑤ 논란의 배경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만, 1학년이 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것은 기사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 아니다.

**42. 비평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수능 이후에 실시하다'라는 절은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절과 시간적 선후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 절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

로 조건을 나타내는 '실시하면'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중간고사로 인하다'라는 절은 '준비 기간이 짧았다'의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까닭이나 근거 등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인하여'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사행성 게임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는 '문제'와 동격이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하여 '운영하는'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느라'는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에 목적이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 ④ '수능 후로 미루다'의 목적은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앞의 내용이 뒤에서 가리키는 사태의 목적이나 결과, 방식, 정도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도록'을 사용하여 '않도록'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않았던'이 성립하려면 이전에 수능 후에 축제를 한 적이 있었어야 하지만 그런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⑤ 문맥상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다'는 '만족도가 높은 학교 축제가 될 수 있다'의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뒤의 사실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면'을 사용하여 '다양화하면'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43.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 ④

**정답 해설** 개념 미술을 감상할 때에 관객이 참여하는 예가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개념 미술과 전통 미술의 감상법을 비교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첫 번째 문단에서 1960년대 개념 미술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함께 개념 미술의 의미가 소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두 번째 문단에서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무제(L.A.에서의 로스의 초상)」라는 작품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네 번째 문단에서 개념 미술의 주요 특징으로 레디메이드, 기록, 언어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마지막 문단에서 개념 미술에 대해 난해하고 복잡하다고 평가하는 일반 대중들의 의견과 그림에도 불구하고 현대 미술의 혁신을 불러왔다는 개념 미술의 의의가 한 문단에 함께 제시되어 있으므로 글에 반영된 계획으로 보기에 적절하다.

**44. 정보 전달 글쓰기의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①

**정답 해설** 2문단에서 작품의 창작 의도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사탕의 본래 무게의 의미, 줄어드는 사탕 무게의 의미, 사탕의 달콤함이 가지는 의미, 사탕을 다시 채우는 행위의 의미 등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에 담긴 의미를 요소별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② 어원에 대한 소개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개념 미술의 성격을 규정하는 마르셀 뒤샹의 말이 인용되긴 했지만 이것이 대상, 즉 개념 미술의 변화 과정을 소개한 내용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묻고 답하는 형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화제와 관련된 글쓴이의 개인적 경험은 찾아볼 수 없다.

**45.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 ④

**정답 해설** '초고'에 의하면 개념 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해설도 필요하고, 관람객의 통찰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 둘 중 어느 것이 우선된 요소인지에 대한 언급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작품의 이해를 위해서는 작가의 해설보다 관객의 통찰이 우선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ㄱ에서 얼음이 증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개념 미술에서 작품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예시로 적절하다.
- ② ㄴ은 '의자'의 사전적 정의를 담은 텍스트를 작품에 활용함으로써 언어를 회화 형식에 끌어들인다는 개념 미술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ㄷ은 초창기 개념 미술이 받은 혹평을 소개한 사례로 개념 미술에 대해 난해하고 불거리가 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로 적절하다.
- ⑤ ㄴ은 얼음, ㄴ은 의자, ㄷ은 소변기를 활용한 작품들이므로 기존에 존재하는 대상이 작품에 활용되는 특징을 보여 주는 예시들로 적절하다.

**35. 품사의 특성** 정답 ①

**정답 해설** '이번 고비는 쉽게 넘기가 어려웠다.'에서 '넘기'는 부사어 '쉽게'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명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파생 접사가 결합한 말과 달리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독서하기'는 '독서하-+-기'로 분석되어 명사형 어미 '-기'에 의해 독서라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 ③ '돌아왔음'은 '돌아오-+-았-+음'으로 분석되어 명사형 어미 '-음'에 의해 행위가 완료된 상태를 드러낸다.
- ④ '노력했음'은 명사형 어미 '-음'에 의해 명사절을 만들어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한다.
- ⑤ '늡음'은 부사어 '저리'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명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된 용언에 해당한다.

**36. 중세 국어의 이해** 정답 ②

**정답 해설** '닭'에 '-움'이 붙은 것은 '닭'의 'ㅌ'가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명사형 어미 '-움'이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도훈 법'은 '닭다'를 수식하는 부사어가 아니라 목적어이다.

**오답 해설**

- ① 평가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 '어려볼씨' 앞에서 명사형 어미 '-디'가 사용되었다.
- ③ '쉬'의 '기'가 반모음 'ㅣ'와 결합된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쉬-'에 명사형 어미 '-움'이 사용되었다.
- ④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 뒤에 명사형 전성 어

미 '-ㅁ'이 사용되었다.

⑤ '쭈'의 'ㅈ'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명사형 어미 '-움'이 사용되었다.

**37. 음운 체계와 변동** 정답 ⑤

**정답 해설** '막일[망닐]'은 '막+일'로 'ㄴ'이 첨가된 후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조건도 아니며, 'ㄴ'이 둘 덧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춧불[초뿔]'은 '초+불'로, 합성 명사의 앞말의 끝소리가 올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올림 예사소리인 경우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② '밤길[밤깁]'은 '밤+길'로, 합성 명사의 앞말의 끝소리가 올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올림 예사소리인 경우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잇뎡[인뎡]'은 '이+뎡'으로, 합성 명사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ㅁ, ㄴ'으로 시작될 때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예삿일[예산닐]'은 '예사+일'로 뒷말 모음 'ㅣ' 앞에서 'ㄴ'이 둘 덧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38. 문장 성분** 정답 ④

**정답 해설** 관형어가 겹쳐 나올 때 뒤의 관형어가 앞의 관형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며, 관형어들은 모두 체언을 수식한다.

**오답 해설**

- ① 의존 명사 앞에서 관형어는 부속 성분임에도 생략할 수 없다.
- ② 관형어가 겹쳐 나올 경우 지시, 수량, 성상의 순서로 쓰이고 임의로 위치를 바꿀 수 없다.
- ③ 체언 뒤에 관형격 조사 '의'가 없더라도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⑤ 겹문장에서 하나의 문장이 더 큰 문장 속에서 관형어로 기능을 할 수 있다.

**39. 국어사전의 이해** 정답 ④

**정답 해설** '집게로 빨래를 쥐어서 빨래 건조대에 널었다.'에서 '쥐어서'는 손가락을 다 오므려 엄지손가락과 다른 네 손가락을 겹치게 하는 행위이므로, '집어서'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40. 매체 자료의 특성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누리 소통망(SNS)에 기사를 공유하는 기능이 기사 화면에 있지만, 이를 통해 독자가 기사의 내용을 수정하여 전파할 수는 없다.

**오답 해설**

- ① 기사 화면 하단에 독자가 댓글을 작성할 수 있게 하며 독자가 기사 내용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
- ② 타인이 작성한 댓글에 답글을 작성할 수 있게 하여 기사를 읽은 독자들 간에 정보 교환과 같은 상호 소통

[언어와 매체]

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③ 기사 화면에 동영상 자료를 삽입하여 독자가 기사 내용을 시각 및 청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 수용할 수 있게 한다.

⑤ 기사 하단에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장치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가 기자에게 의견을 전달하거나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다.

#### 41. 뉴 미디어의 특성

정답 ①

**정답 해설** 이 기사에는 인공지능의 단점이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된 다른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이퍼링크가 기사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 이를 통해 독자가 기사와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이퍼링크를 통한 관련 기사 제공은 종이 신문의 기사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방식이다.

**오답 해설**

② 이 기사는 앞부분에 기사의 핵심 내용을 두 줄로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기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인공지능의 단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종이 신문의 기사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종이 신문에서도 기사의 핵심 내용을 요약 제시하여 기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③ 이 기사는 대화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림 자료를 기사에 삽입함으로써 대화형 인공지능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종이 신문의 기사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종이 신문에서도 그림 자료를 통해 기사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④ 이 기사는 제목과 부제를 기사 본문보다 큰 글씨로 보여 줌으로써 독자가 인공지능에 단점이 있다는 기사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종이 신문의 기사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종이 신문에서도 제목과 부제를 기사 본문보다 큰 글씨로 보여 줌으로써 독자가 기사의 주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⑤ 이 기사에는 과학·기술 분야의 기사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링크가 제공되어 있다. 하지만 링크로 제공된 기사의 제목을 보면 인공지능의 단점을 강조하는 이 기사의 내용과는 연관성이 없으므로, 해당 방식을 사용하여 기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 42.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정답 ①

**정답 해설** 을, 병, 정은 댓글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화형 인공지능의 답변의 정확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검증하는 후속 기사를 작성하겠다는 계획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댓글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관련 법률 정보에 대해 후속 기사를 작성하겠다는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③ 댓글에서는 인공지능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는 기사의 의견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의 폐해에 대해 후속 기사를 작성하겠다는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④ 병을 제외하고 갑, 을은 학습과 관련된 직업을 가졌을 것이라 추론할 수 없다. 을의 댓글에서 이야기하는 학습은 인공지능의 학습을 의미하며 사람의 학습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학습법에 대해 후속 기사를 작성하겠다는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⑤ 댓글에서는 전반적인 대화형 인공지능의 답변의 정확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기사에 삽입된 C 서비스의 오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다른 대화형 인공지능과 C 서비스의 정확도를 비교하는 후속 기사를 작성하겠다는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 43. 매체 자료의 특성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가)는 에어컨의 효과적인 사용을 통한 전기료 절약 방법을 알리고 있어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② (가)는 설문 조사가 아닌,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가 뉴스의 정보를 구성하는 주체의 일부로 참여하고 있다.

③ (나)는 제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밝히고 있지 않다.

④ (가)는 제품의 적정 냉방 면적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여 준다는 점에서, (나)에 비해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⑤ (나)는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가)에 비해 생산자 위주의 정보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 ③

**정답 해설** 제조사별로 에어컨의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시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올해 에어컨 판매량을 언급하여 에어컨 사용법에 관한 주제가 시의성 있는 것임을 부각했다.

② 소비자의 경험을 인터뷰 방식으로 전달하여 에어컨을 잘못 사용하는 사례를 드러냈다.

④ 진행자가 시청자의 입장에서 기자에게 질문을 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올바른 에어컨 사용법을 전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⑤ 기사는 한국 에너지 공단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를 소개하여 에어컨의 에너지 소비 효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45. 매체 언어의 비판적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광고에서 '둘보다 나은 하나'라는 문구는 제습과 냉방 기능이 모두 가능하다는 제품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방송에서는 거실 에어컨의 용량을 줄이고 방에 별도의 소형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소비자들이 에너지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제품명 앞에 인버터형임을 크게 제시하였다.

② 소비자들에게 냉방 면적이 과거 모델과 비교해 20% 가량 증가하였다는 점만 제시하고 냉방 면적의 크기에 대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③ 경제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하단에 굵게 표시하였다.

④ 제품의 시원한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눈 덮인 산과 바람에 옷자락이 날리는 모델을 배경으로 삼았다.